



啓聖同窓會報

“앞에 섰는 건 비슬산이요
뒤에는 팔공산 들렀다.....”
힘차게 교가를 부르면서
50계단을 오르내렸던 동문 여러분!
새해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가득 받으시기를!

2012년 1월 1일

계성학교 총동창회 회장단 일동



계성학교총동창회
www.keisung.or.kr

세계로 뻗어가는 NEPES CapLED

독자적인 Cap LED™(High Power Package)기술로 미국특허 자체보유
대형 공장 형광등조명을 LED조명으로 세계 최초 성공적으로 교체

장점 | 100% 무결점에 도전하는 빛 품질의 우수성

저비용 & 고효율의 뛰어난 경제성(ROI : 평균 2.5년)

가정용 생활조명, 공장, 대형마트 등 실내조명에서 가로등의 옥외조명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라인(고객맞춤화 가능)

Former Phillips

Clean room LED Light in Thailand



Chechen Republic

Cap Street Light 150W



KCC : Photo zone

Yellow Lamp in Korea



nepes
napes corporation

서울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9-2 하임빌딩
오창2공장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송대리 311-2
Tel. 043-240-9497

계성 53회 동문 총 동창회장
NEPES CEO 이병구



啓聖同窓會報

목 차

신년사 및 축하

- 04 신년사 총동창회장 이병구(53회)
- 05 축하 재경동창회장 윤동한(52회)
- 06 축하 재포동창회장 성배기(59회)

특집

- 08 개교 105주년 기념 계성총동창가족 체육대회 스케치

총동창회 소식

- 10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
이병구 총동창회장, 계성재단 방문
농구부 3연승 쾌거 축하, 박정화 농구동호회장 격려
총동창회 기별 마라톤 대회
- 11 제20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테니스 대회
기별 등반대회, 대경합동산행
- 12 총동창회장배 기별 바둑대회
- 13 제3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회 및 고교동창골프대회
선수 선발전
제15회 총동창회장기 기별 축구대회

기별소식

- 14 기별소식
- 24 기별특집 - 49회

지역·직능·동호회 소식

- 25 지역별소식
- 30 직능별소식
- 31 동호회소식

동문인터뷰

- 34 서복섭(31회) 동문
- 36 소진세(55회) 동문
- 38 박정찬(60회) 동문
- 40 신승균(61회) 동문
- 42 박해주(62회) 동문
- 44 이태경(83회) 동문

계성인의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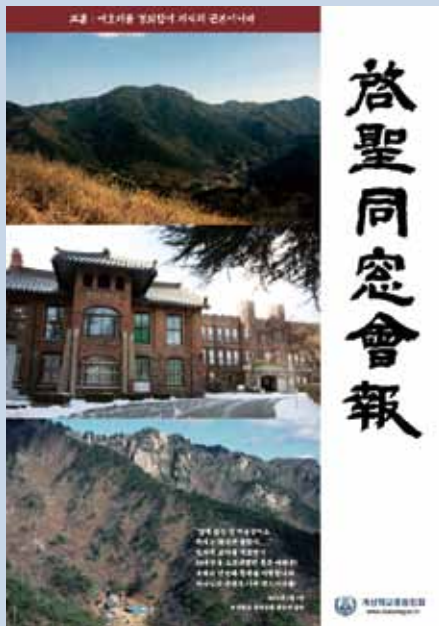
- 46 계성인의 서재

모교소식

- 50 제36회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 농구대회 우승
- 52 학교행사(2011년 2학기)
- 53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

납부내역

- 54 2011년도 장학금 납부내역
2011년도 회보구독료 납부내역



·표지사진 : (위) 비슬산, (가운데) 모교, (아래) 팔공산
·촬영 : 정만진(61회)

계성동창회보 〈동권 56호〉

발행일 : 2012년 1월 10일

발행인 : 이 병 구

편집인 : 김 정 길

발행처 : 계성학교총동창회

주 소 : 700-720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전 화 : (053)255-3900

전 송 : (053)256-4942

인쇄처 : 금성기획

전자우편 : keisung@keisung.or.kr

홈페이지 : 계성학교총동창회(www.keisung.or.kr)



계성학교총동창회
www.keisung.or.kr



동창회보와 동창회, 그리고 모교

존경하는 6만 동문 여러분! 동창회보 속간을 축하드리면서, '새해'라는 이름의 희망찬 시간을 맞이하여 선후배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학교문화와 가족여행의 풍속도가 바뀌면서 많이 회자되는 명언 가운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의 것과 같지 않으리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언뜻 그리스 철학자의 뉘앙스가 풍겨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문장가 유한준이 남긴 말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알고 나면, 전에 못 보던 것들도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교 교정 안 어디에 3.1운동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지, 지금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동창회의 역점 사업이 무엇인지, 동기회 간부들이 누구누구인지 등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다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발간되는 것이 동창회보입니다. 선후배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교 상황은 어떤지, 동창회와 동기회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등 많은 소식을 알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동창회보를 속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동문들께서 애정과 관심으로 회보를 열독하고 계시고요.

이번 회보에도 많은 소식을 실었습니다.

총동창회와 각 동기회는 물론 해외 동문회의 활동 내용도 실었고, 동문 개개인의 경조사와 사회활동 소식도 가득 게재했습니다. 흥미진진한 인터뷰 기사들과 모교소식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이 모두가 '뉴스'를 열심히 동창회 편집실로 전해주는 각 동기회, 동호회, 지역별 동문회의 도움 덕분일 것입니다.

또, 소통문화를 열어가는 모범 동기회로 49회를 소개했습니다. 동기끼리의 활발한 소통이 총동창회 전체의 활기를 북돋우는 토대가 된다는 진리는 증언부언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동기회에서도 좀 더 활기찬 소통매체 발간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장학기금을 기부하신 동문,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신 동문 여러분께 모두들 충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후배들을 키우고 동창회보를 살리는 일은 곧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동창회를 살찌우는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가호가 선후배 여러분께 가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창회보의 속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동창회장 이 병 구 (53회)

‘나[吾]’를 지키고, ‘모(母)’교를 가꿔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뜻을 이룰 수 있고,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1년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대구 방문의 해’였습니다. 타지에 거주하는 동문들께서도 지난 한 해 대구를 방문할 기회를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꿈 많던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 바로 대구이니, 만약 그곳에 가셨다면 모교의 50계단을 거닐며 감회와 추억에도 한번쯤 젖어보실 수 있었겠지요.

‘국적(國籍)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學籍)은 바꿀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졸업한 학교를 ‘모교(母校)’라고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찌 어머니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몸을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라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꾸어준 곳이 바로 모교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지키고, 나아가 가꾸어야 마땅합니다. “천하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吾]’는 지켜야 한다. 내 발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다산 정약용이 포항 장기에 와서 여덟 달 동안 귀양살이를 할 때 남긴 글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모교!

우리나라 교육사에도 우뚝 솟아 있는 모교의 전통은 지역사회와 국가는 물론 세계 곳곳에까지 뛰어난 동문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개화기의 먼동이 틀 무렵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발한 명문 사학인 만큼 계성의 졸업생들은 새 천년의 선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른바 지식기반사회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과학의 급속한 발달은 사람의 재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중왕이 500년대 초입(初入)에 도입한 우경(牛耕)이 1970년대까지 1500년 세월 동안 큰 변함없이 계속되지만, 그 후 불과 30년이 지나는 동안 농사짓는 과학이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지식기반사회라는 말이 지닌 설득력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교도 창의적 지식을 생산할 줄 아는 새로운 후배들을 키워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교 발전의 한 축은 우리 동문들 스스로입니다. 또한 동창회의 내실(內實)을 키워가는 일이 곧 모교의 미래를 밝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해맑은 청소년기를 보냈던 50계단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문들 모두가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작은 노둑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마치며, 동문 선후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화의 365일이 주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재경동창회장 윤 동 한 (52회)



흑룡의 해,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개교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역사가 시작된 지도 올해로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년만이라는 흑룡해 임진년 새해 벽두에 전국 8만여 동창 선후배들에게 포항지역 계성 동문들의 이름으로 새해 모두들 건승하시라는 인사와 함께 책자로 발간되는 지령56호 동창회보를 꾸며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포항지역에는 제33회 이명환 원로 선배님으로부터 제80회 김대철 동문에 이르기까지 약500여 동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400여 동문이 2011년 동문회원 수첩에 등재되어 있고, 년중 매분기 정기모임과, 6월 6일 동문가족체육대회 겸 정기총회와 12월의 동문가족 송년회 등의 행사를 통해서 지방동문회로서는 비교적 많은 동문들이 아련한 오십계단의 추억을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이곳 포항에서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교육정책의 변경과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포항지역의 동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많은 동문들의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은 인원이라도 보다 재미나고 알찬 동문회를 꾸려보고자 노력하고 있어 지난 12월 송년회는 예년보다 많은 190여명의 동문들이 가족들과 참석하여 급히 테이블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즐거운 소동도 있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여성 동문들도 결혼과 취업 등으로 우리지역에 유입될 것을 기대하며 보다 재밌고 활동적이며 격의 없는 선후배간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며 계성인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향후 우리지역을 방문하시는 동문들께서는 포항 동문회로 연락주시면 과메기에 약주 한잔은 물론 해당기수 동창들과의 연락을 주선했다는 약속도 전해드립니다.

작금의 세월은 초스피드 시대라 많은 것이 변하고 있으나 오십계단의 추억이야 우리 계성동창들에게는 영원불변의 향수가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일에 교사 건축도 완공되면 자율형사립고 지정 후 날로 향상되는 모교의 학력을 토대로 100년 계성의 명성이 다시금 빛을 발하는 그날까지 전국의 동창 여러분 건강하시고 올해도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재포동창회장 **성 배 기** (59회)



2012년 계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임진년 흑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오는 2월 10일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계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한 해의 시작을 동문여러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많은 동문여러분 참석하시어 오랜만에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며 기쁜 자리를 만들어봅시다!

- 일 시 : 2012년 2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개교 105주년 기념 계성총동창가족 체육대회 스케치

계성의 자랑! 바로 당신입니다!

2011년 10월 3일, 언제나 그랬듯이 하늘이 열린 개천절을 맞아 계성총동창가족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때로는 모교에서, 때로는 시의 공영운동장들을 빌려 행사를 치렀지만, 학교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모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될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아쉬움과 함께 모교운동장에서 펼쳐졌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계성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입장식이 거행되었다. 각 동기별로 유니폼을 갖추어 입고, 손에 손에 풍선을 들기도 하며 자기 기수를 자랑하고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아이디어로 입장을 하였고, 본부석에서는 이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박수와 함성을 보내 주었다.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기도, 국민의례, 우승기 반환의 순서와 대회사, 격려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105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리고, 즐겁고 유쾌한 체육대회를 바라며, 동창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 모교가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말씀들이 있었고, 특히 2012년 학교 이전을 앞두고 모든 절차의 진행이 무사히 잘 되기를 다같이 소망하는 말씀들이 있었다.

이어 체육대회가 시작되었고, 모두들 자기 동기들의 승리와 선전을 바라며 열심히 뛰고 힘껏 응원을 하였다. 아마추어답지 않게 뛰어난 기량을 보일 때는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마음과는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 실수를 할 때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온 가족들 모두 함께 체육대회의 순서들을 즐겼다.

각 동기들의 천막 아래서는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정담을 나누었고, 모교의 은사님들, 사랑하는 선·후배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모교에서는 후배들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조그마한 수익 사업을 벌였는데, 학교 마크가 새겨진 시계, 등산양말 세트, 링 타이 등을 준비하여, 학교발전기금 1만원 이상을 기부한 동창들에게 선물로 제공하였다. 후배를 돕는 마음으로 너도나도 참

여를 하여 이날 하루만 200만원 이상의 기금을 모금하였다. 이 후로도 동기들 간의 각종 행사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학교 기념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체육대회가 무르익어 가는 동안에 자녀들을 위한 행사들도 진행되어 아빠를 따라온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했다. 지난 대회에서 계성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운동장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백일장도 올해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상장과 부상을 받아가기도 하였고, 본부에서 제공하는 기념품,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운동회들도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다.

가을의 따가운 햇살이 점점 기울어지는 동안, 오랜만에 뛰면서 가빠진 호흡으로, 가족, 친구들과 나누는 정담으로, 한잔 두잔 나누는 술잔으로 모두들 불그레한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가운데 체육대회는 서서히 마무리 되어 갔다.

성적 발표에 이어 CB, OB, YB팀 별로 종목별 수상, 종합 수상의 상품들을 푸짐히 챙기고 폐회사와 교가 제창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끝이 났다. 언제나처럼 준비하는 사람, 행사장에서 수고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게 있어도 전체가 그렇게 어우러져 또 한번의 행사를 잘 치러내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계성의 전통과 저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다가올 개교 106년 가족체육대회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이전하는 멋진 교정에서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스케치를 마무리한다.



CB 종 합 성 적		
구 분 등 위	총득점	회
우 승	670점	54회
준우승	565점	53회
3 위	495점	55회
감투상	450점	59회

O.B 종 합 성 적		
구 분 등 위	총득점	회
우 승	915점	65회
준우승	715점	63회
3 위	585점	60회
모범상	550점	64회

Y.B 종 합 성 적		
구 분 등 위	총득점	회
우 승	915점	72회
준우승	705점	71회
3 위	605점	75회
장려상	605점	79회

총/동/창/회/소/식

■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

9월 19일 총동창회는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를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A홀에서 개최했다. 목장회 최태조(48회) 회장의 기도 인도에 이어 이병구(53회) 총동창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김재현(59회) 모교 교장의 학교현황 설명이 이어졌다. 김정길(56회) 사무처장의 전반기 총동창회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 후, 모교 김태호(55회) 체육교사의 10월 체육대회의 전반적인 요강설명과 함께 내년 체육대회에 줄넘기 종목 추가를 결정했다. 회의를 마친 동문들은 준비된 식사를 함께하며 답소를 나눈 후 폐회하였다.



■ 이병구 총동창회장, 계성재단 방문



12월 5일 모교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염려 가운데 이병구(53회) 총동창회장께서 계성재단을 방문, 주변 잡다한 의견은 물론 약간의 금전적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조속한 건축 진행에 최대의 관심과 역점을 바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농구부 3연승 쾌거 축하, 박정화 농구동호회장 격려



12월 5일 그랜드 호텔 커피숍에서 25년 만에 획득한 모교 농구부의 3연승 쾌거를 축하하고자 박정화(63회) 농구동호회장과 격려차 만남에서, 농구부 전용버스 구입에 관한 박 회장의 의견에 총동창회와 이병구 회장 개인 금일봉을 협찬하기로 약속하였다.

■ 총동창회 기별 마라톤 대회

· 계성인의 42.195km 대장정

2011년 4월 10일 계마회가 주최한 총동창회 기별 마라톤 대회가 개최하였다.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 모인 동문들은 각자 준비운동을 하며 몸을 풀었다. 출발 총성과 함께 42.195km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동문들은 몸이 지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뛰고 힘이 되어주었다. 계성인들의 끈끈한 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이날 대회 1위는 CB팀 58회, OB팀 60회, YB팀 77회가 각각 차지하며 숨 가쁜 대장정을 마쳤다.



올해로 계마회가 은하철도999를 타고 달린지 어언 10여년, 이제 서로의 숨결만 들어도 페이스를 가늠할 만큼 한 식구로 뭉쳤다. 선 후배가 고통과 슬픔, 기쁨을 함께하여 온 누리에 계성인의 긍지를 펼치고자 한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나 환영합니다!”

구분 \ 성적	1위	2위	공동 3위	4위	5위	6위
CB팀	58회	57회	53회	59회	54회	51회
OB팀	60회	63회	65회	68회	61회	62회
YB팀	77회	79회	71회	72회		

■ 제20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테니스 대회

· 계성인의 통통 튀는 맑은 공 소리

지난 5월 1일 개최된 총동창회장배 기별 테니스대회는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두류공원 내)에서 열린 제20회 테니스대회는 70회 동기회가 주최하였으며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대회 시작 전부터 많은 동문들이 경기장에 모여 인사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참석한 동문들과 안부를 묻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경기결과는 CB팀 54회, OB팀 63회, YB팀 77회가 각각 1위를 차지하며 대회를 마쳤다.



구분 \ 성적	1위	2위	3위	등외
CB팀	54회	53회		
OB팀	63회	69회	65회	64, 67회
YB팀	77회	72회	70회	71, 75회

■ 계성인의 건강한 발자국 기별등반대회, 대경합동산행

· 계성인, 팔공산에 숨결을 남겼다

2011년 5월 15일 제13회 총동창회 기별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팔공산 산행을 하였다. 오전 9시 팔공산 동화사 입구 야영장에 집결한 동문들은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후 봄날의 산행을 만끽했다.

구분 \ 성적	1위	2위	공동 3위	등외
CB팀	55회	54회	51회	52회, 53회
OB팀	60회	65회	63회	61회, 62회, 67회
YB팀	71회	70회	76회	72회, 75회, 79회

총/동/창/회/소/식



· 개교105주년 기념 계성총동창산우회 대경합동산행



10월 16일 개교 105주년을 기념한 대구, 서울 동문가족 합동 산행을 가졌다.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 위치한 정령산은 자연장관이 수려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으로 이날 동문 및 동문 가족 150여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각자 안부를 묻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산행을 시작했고,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10월의 자연을 보며 계성인의 숨결을 마음껏 발산하였다.

■ 총동창회장배 기별 바둑대회

· 계성인의 머리싸움, 고수가 왔다!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기우회가 주관한 총동창회장배 기별 바둑대회가 지난 6월 12일(일)에 개최되었다. 한국기원 대구본부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예년보다 많은 기수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무엇보다 각 기수마다 실력이 더욱 향상하여 과연 몇 기가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시작되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동문들은 게임에 집중하여 초반 대회장은 엄숙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으나 곧 긴장이 누그러지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웃음과 탄식, 그리고 응원의 목소리가 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CB팀 54회, OB팀 64회, YB팀 72회가 각각 1위의 성적을 거두며 고수의 면모를 과시했다. 동문들은 1위를 차지한 기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으며 다음 번 대회를 기약하며 행사를 마쳤다.

구분	성적	1위	2위	공동 3위	등외
CB팀		54회	58회	56회	59회
OB팀		64회	65회	61,63회	60,66회
YB팀		72회	71회	70회	



■ 제3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회 및 고교동창골프대회 선수 선발전

· 계성인의 녹색 발걸음, 청도에

2011년 7월 15일 제3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회가 청도 그레이스CC에서 개최되었다. 이병구(53회)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하 가운데 열린 이번 골프대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동문들의 열정적인 경기로 더위마저 잊을 정도였다. 경기를 마친 후 만찬장에 모인 동문들은 맥주 한 잔으로 갈증을 날리고, 준비된 만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에서 CB팀 56회, OB팀 65회, YB팀 72회가 각각 1위를 차지하여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 행운권 추첨 등 동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며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행사를 마친 후 동문들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구분 \ 성적	1위	2위	공동 3위	등외
CB팀	56회	59회	53회	
OB팀	65회	60회	61회	62, 63, 66, 69회
YB팀	72회	74회	73회	70, 76회



■ 제15회 총동창회장기 기별 축구대회

· 계성인의 힘찬 공, 강변을 날다

2011년 9월 25일 제15회 총동창회장기 기별 축구대회가 대구 강변 축구장 1, 2구장에서 개최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축구경기가 치러지는 운동장에 모인 동문들은 벌써부터 운동장을 가르며 몸을 풀었고, 경기가 시작되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을 펼쳤다.

이날의 우승은 78회가 차지했고, 2위 77회와 공동 3위를 차지한 75, 76회는 내년도 대회에는 반드시 우승을 탈환하겠다는 다짐을 보이며 경기를 마쳤다. 대회 후 동문들은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여 뜻 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구분 \ 성적	1위	2위	공동 3위	등외
YB팀	78회	77회	75, 76회	71, 72, 73, 74, 79회





제 5 회

■ 동문동정

· 박태준 박태준 기념사업회 설립기념음악회 개최(2011.10.29)



제 27 회

■ 부고

· 서상훈 본인상(2011.4.19)



제 35 회

■ 재단법인 이형섭 복지재단

제1회 요산 이형섭 사회봉사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20일(화) 오전 11시, (주)한불화능 직원식당에서 개최되었다.

■ 부고

· 이형섭 본인상(2011.6.28)



제 36 회

■ 부고

· 김동성 본인상(2011.12.15)



제 38 회

■ 부고

· 김명주 부인상(2011.6.14)



제 39 회

■ 부고

· 서정원 모친상(2011.4.4)



제 42 회

■ 이상기 동문 모교 방문



지난 11월 15일 시카고에 거주하는 이상기 동문이 모교를 방문하여 지난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정기총회 개최

12월 23일(금) 수성구에 위치한 미가식당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였고, 신임회장에 정태화 동기, 총무에 김용석 동기를 선출하였다.

■ 동문동정

· 김창환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을 기리기 위한 사단법인 심산기념관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제 44 회

■ 부부동반 가을 야유회

지난 가을 44회 동기회는 망양정, 담수어 연구소 등 동해안 일원으로 부부동반 야유회를 다녀왔다. 동기 및 부인포함 총 54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총회

2011년 12월 16일(금) 정오에 영남별장에서 총회를 갖고 도재북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동문동정

· 신일희 독일정부로부터 韓-獨간 문화교류와 국제관계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간부문 최고 권위인 대십자공로훈장 수상(2011.7.21)



- **신일희** 한국인 첫 중국 공자아카데미 총부(본부) 이사회 이사로 추대
- **이유신**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조직위원회 주관 실기대회) 서양화 부문 최고상(2011.10.7)



제 45 회

■ 가을야유회



지난 10월 13일 4/4분기 모임은 곽병영 회장이 사비출연으로 제공한 관광버스를 타고 구미 해평 도리사를 거쳐 상주 낙동 한우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상주 경천대와 박물관을 둘러보는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야유회에는 28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동문동정

- **신현수**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평가에서 전국 2위의 성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민주적 참여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안동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안동의료원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Q경영대회 및 6시그마 성과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타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 경사

- **곽인탁** 자녀결혼(2011.9.17)

■ 부고

- **이규력** 본인상(2011.4.11)
- **권영호** 본인상(2011.4.25)



제 46 회

■ 동문동정

- **김성수** 제23회 고금미술선정작가 이정호전을 주관
(2011.12.6~2011.12.11)



제 48 회

■ 2011년 총회 및 송년회



12월 20일 시내 동성로 1가에 위치한 햇고을 식당에서 총회와 송년회를 겸소하게 가졌다. 특히 이 날은 2011년 회장직을 수행하고 물러나는 강영덕 회장에게 총동창회장의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 새롭게 동기회를 이끌어갈 서준 신임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최태조 목사의 새해 동기들의 건강과 발전을 위한 축도가 이어졌다.

2011년 동기회 결산보고와 12월 출생동기 생일 축하연을 가졌고, 아름다운노래 합창과 함께 식사와 환담을 나눈 후 행사를 마쳤다. 2012년도 신임 회장에 서준 동기를 총무에 김진부 동기를 선출하였다.

■ 동문동정

- **김태준** 소설가로 등단(2011.8)

■ 경사

- **이도의** 차남 결혼(2011. 4. 3)
- **권혁세** 장녀 결혼(2011. 4. 9)
- **김연수** 장남 결혼(2011.6.24)
- **이태모** 자녀 결혼(2011. 9.24)

기/별/소/식

- 임무광 자녀 결혼(2011.10. 8)
- 양수남 장녀 결혼(2011.11.12)

■ 부고

- 유건치 본인상 (2011.10. 28)
- 심홍필 부친상 (2011.11. 15)



제 49 회

■ 동기회 사무실 이전

지난 9월 30일(금) 49회 동기회 사무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 전하였다. (수성동 2가 62-5번지)

■ 경사

- 이정현 아들 결혼(2011.5.14)
- 신준식 아들 결혼(2011.10.1)
- 이경옥 아들 결혼(2011.11.12)
- 김문순 자녀 결혼(2011.12.22)

■ 부고

- 김영만 본인상(2011.6.11)
- 박규하 부친상(2011.6.20)
- 최희성 모친상(2011.7.21)
- 김주성 모친상(2011.10.5)
- 장효건 모친상(2011.11.8)



제 50 회

■ 동문동정

- 박재천 박용목 목사 추모예배 및 출판기념회(2011.4.9)
서울 서대문구 모래네 지역 교회연합회장 취임
(2011.12.15)

■ 경사

- 주철은 모친상(2011.7.6)

■ 부고

- 박연택 모친상(2011.10.25)



제 51 회

■ 정기총회 및 송년회

12월 5일 영남별장에서 총 41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회 및 정기총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인구 회장의 뒤 를 이어 2012년도를 이끌 회장으로 이계주 동문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 설형식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모처럼 자유총연맹 총재 박창달 동문이 참석하여 정담을 나누었다.

■ 동문동정

- 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 시카고지회 창립(2011.10.13)
자유총연맹 총재, 출판기념회(2011.12.29)

■ 경사

- 이상직 자녀결혼(2011.10.29)

■ 부고

- 이동각 부친상(2011.12.13)



제 52 회

■ 동문동정

- 유윤철 온산 유허비료공장 준공식(2011.4.8)

■ 경사

- 장명익 장남 결혼(2011.3.20)
- 이현종 차남 결혼(2011.4.23)
- 김종완 차남 결혼(2011.5.7)
- 차준효 3남 결혼(2011.5.15)
- 조영복 장녀 결혼(2011.5.21)
- 서상운 장녀 결혼(2011.5.29) / 차녀 결혼(2011.11.27)
- 최연호 장남 결혼(2011.5.29)
- 신기용 차녀 결혼(2011.6.11)
- 김경호 장남 결혼(2011.6.13)
- 이병근 차녀 결혼(2011.6.25)
- 김영식 장남 결혼(2011.9.24)
- 김일현 장남 결혼(2011.10.1)
- 김동현 장남 결혼(2011.10.8)
- 김현진 장남 결혼(2011.10.22)
- 박찬엽 차남 결혼(2011.10.29)



- 조재수 장남 결혼(2011.10.29)
- 김익수 장녀 결혼(2011.10.30)

■ 부고

- 남태운 부친상(2011.2.3)
- 고한석 부친상(2011.2.5)
- 안원욱 모친상(2011.2.17)
- 장성열 부친상(2011.5.1)
- 김준규 본인상(2011.6.25)
- 임무영 모친상(2011.7.23)
- 김원석 부친상(2011.7.27)
- 문진철 모친상(2011.9.20)
- 박찬엽 부친상(2011.9.22)
- 구은희 모친상(2011.9.28)
- 조영호 모친상(2011.11.4)
- 장효철 모친상(2011.11.8)



제 53 회

■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12월 19일(화) 스파벨리 애지앙 2층에서 53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갖고 오랜만에 모인 동문들과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동문동정

- 고재철 학장취임(2011.1)
- 오태호 갤러리 오픈(2011.4)
- 최백영 제6대 의정회 회장 취임식(2011.4.14)
- 이병구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300대 기업'에 네패스(대표이사 이병구) 선정(2011.6.3)
- 남효덕 영남대 기독교생활관 건립위원장 맡아 기독교생활관 강당에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실을 완공, 감사예배(2011.6.20)

- 조광제 보화상 시상식(2011.4)/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 선정(2011.11)
- 이춘식 섬유개발원장 연임(2011.8)
- 서주영 대구월드컵 스타디움물 칼라스퀘어 아트홀 개관(2011.10)
- 신재학 정수대전 시상식(2011.11)
-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2011.11)

■ 경사

- 백경진 아들 결혼(2011.2)
- 이병택 자녀 결혼(2011.11.5)
- 이상교 아들 결혼(2011.6)
- 한형기 딸 결혼(2011.9)
- 안옥원 딸 결혼(2011.10)

■ 부고

- 박진영 부친상(2011.2)
- 이춘식 모친상(2011.6)
- 신재학 부친상(2011.6.29)
- 이원근 부친상(2011.9)
- 김원기 부친상(2011.9)



제 54 회

■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12월 6일(화) 제이스호텔에서 54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동문동정

- 손수상 모친상(2011.6.10)

■ 부고

- 한명로 모친상(2011.6.30)



제 55 회

■ 경사

- 황금식 장녀결혼(2011.11.13)
차녀결혼(2011.12.18)
- 오유인 자녀결혼(2011.12.14)

■ 부고

- 정인재 모친상(2011.6.10)



제 56 회

■ 동기회 단합대회

2011년 5월 15일 산동성에서 동기회 단합대회를 갖고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동기회가 되자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재경체육대회 참가

6월 6일 56회 동기회는 국회의사당 운동장에서 개최한 재경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나이를 잊고 운동장을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총동창회 기별 바둑대회 참가

6월 12일 총동창회에서 개최한 기별 바둑대회에 김태열, 이재윤, 이준기, 정욱표, 최돈문 동문이 출전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 총동창회 기별 골프대회 참가

7월 15일 청도 그레이스CC에서 개최한 총동창회 기별 골프대회에 참가한 56회는 CB부 우승을 차지하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하였다.

■ 이사회

9월 21일 길조한정식에서 이사회를 갖고 동기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동문동정

- 김상원 대가야요양원 개원 이사장취임(2011.4.4)
- 김 윤 ROTC대구경북 11기 회장취임(2011.6.17)
- 이동욱 신사옥 신축 축하(2011.10.19)
- 임상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1일 명예역장(2011.6.9)
동대구 역사 내 약국개업(2011.11.16)

- 이재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회장, 민족통일현의회
창설 30주년 기념 전국대회 개최(2011.11.18)
출판기념회(2012.1.11)

- 김석준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출마 선거사무소 개소(2011.12.20)
출판기념회(2012.1.5)

- 황기철 (총동창회 부회장)일본사가현유도협회 초청으로 대구시
유도회 임원과 함께 한일친선경기교류 유도대회 참가

■ 경사

- 조영선 자녀결혼(2011.4.2)
- 이재윤 장녀결혼(2011.4.2)
- 구입본 장남결혼(2011.5.1)
- 박노학 장남결혼(2011.5.7)
- 김우곤 장녀결혼(2011.5.7)
- 김기영 아들결혼(2011.5.21)
- 김찬수 자녀결혼(2011.6.11)
- 신영태 자녀결혼(2011.6.12)
- 차소영 차남결혼(2011.6.18)
- 김영룡 차남결혼(2011.6.18)
- 김우곤 차녀결혼(2011.9.3)
- 박준현 장녀결혼(2011.9.25)
- 박세원 장남결혼(2011.10.16)
- 김주건 장남결혼(2011.10.22)
- 김 윤 장남결혼(2011.10.30)
- 이명현 장녀결혼(2011.11.5)
- 김태수 자녀결혼(2011.11.13)
- 오테원 자녀결혼(2011.11.19)
- 김성호 장녀결혼(2011.11.20)
- 정병화 장녀결혼(2011.12.11)
- 박영석 장남결혼(2011.12.17)
- 전재현 장남결혼(2011.12.24)
- 윤용준 장녀결혼(2012.1.7)
- 이현택 차남결혼(2012.1.8)

■ 부고

- 김 윤 모친상(2011.9.22)
- 송원택 모친상(2011.10.25)
- 김태열 모친상(2011.11.3)



제 57 회

■ 동문동정

- 이상배(마이스터고) 경북기계공고에 교장, 제41회 런던 국제

기능올림픽대회에서 세 명의 메달 입상자 배출(2011.10.13)–
2011년도 기능올림픽 금메달 전국 최다획득

■ 부고

· 안재운 병부상(2011.6.17)



제 58 회

■ 동문동정

- 오창관 포스코부사장, 국제스테인리스 스틸 포럼(ISSF) 제9대 회장 선출(2011.5.22)
- 김춘식 제28회 천안시민의 상 수상(2011.10.1)

■ 경사

· 금춘수 자녀결혼(2011.12.18)

■ 부고

- 윤석용 부친상(2011.6.12)
- 김기웅 부친상(2011.7.18)



제 59 회

■ 동문동정

- 추교원 제6대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내정(2011.8.19)
- 신점식 서구부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개소(2011.10.14)
- 김원호 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회장 출마(2011.12.2)

■ 경사

- 이인기 자녀결혼(2011.9.18)
- 김영기 자녀결혼(2011.12.3)



제 60 회

■ 추억의 7080콘서트

2011년 11월 13일(일) 오후6시부터 모교 본관 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60회 가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억의 7080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이날 콘서트에는 모교 고등학교 김재현 교장과 총동창회 김정길 사무처장이 참석하였고, 7080콘서트 준비위원장 조판재 동기의 개회사, 이인식 60회 동기회 회장의 인사말이 있는 후 권중생 동기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김흥식 동기의 사회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어 추억의 노래들의 합창과 서중호

동기 부인 강해림(시인)님의 축시낭송, 이진숙 동기의 솔로 독창과 장녀의 피아노 독주, 이인식 회장의 아버님의 기타솔로 연주와 장녀의 즉석 피아노 독주, 윤재호 동기의 색소폰 연주가 이어졌다. 특히 우명동 동기의 신청곡인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의 합창은 많은 동기들에게 감명을 전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교가를 힘차게 부른 후 본 행사를 마치고, 간단한 리셉션과 행사 평가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 재경동기회



60회 재경동기회 산우회 100회 산행 기념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다녀왔다.

■ 동문동정

- 이수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사무과장으로 영전(2011.8.24)
- 박상태 (주)성안 서울무역사무소 이전(2011.5.30)

■ 경사

· 조영주 자녀결혼(2011.12.10)



제 61 회

■ 사랑방 개소

61회 동기회는 2011년 5월 21일(토) 달서구에 위치한 사무소에 61동기회 사랑방을 개소하고 많은 동기들과 즐거운 만남을 갖고 있다.

기/별/소/식

■ 동문동정

- 이석철 경북JC특우회 회장 피선(2011.11.9)
- 최봉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승진(2011.12.6)
- 금문수 (사)한국자유예술인 협회 상임위원장에 취임
- 박화석 중앙기업(주) 인수
- 김진규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 취임
- 남영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전 천안지점 전보
- 임성혁 경찰대학교 교향악단 단장 취임
- 전진수 (주)위비코리아 총괄부사장

■ 경사

- 정병욱 장녀 결혼(2011.10.2)
- 윤강혁 장녀 결혼(2011.11.12)
- 임사은 장녀 결혼(2011.11.12)
- 정상동 장남 결혼(2011.11.18)
- 양담영 장남 결혼(2011.11.20)
- 유한주 장녀 결혼(2011.11.20)
- 송시원 차녀 결혼(2011.12.3)
- 류인걸 장녀 결혼(2011.12.10)
- 최건열 장남 결혼(2011.12.10)
- 강우원 장남 결혼(2011.12.18)
- 이희주 장남 결혼(2011.12.24)
- 인기성 장녀 결혼(2012.1.28)
- 이순동 차녀 결혼(2012.2.4)
- 이국희 장녀 결혼(2012.2.5)
- 박고수 장남 결혼(2012.2.11)
- 신현철 장녀 결혼(2012.2.12)

■ 부고

- 서정환 모친상(2011.10.5)
- 최영호 부친상(2011.11.5)
- 정현석 부친상(2011.11.9)
- 심원필 부친상(2011.11.19)
- 박성준 모친상(2011.12.2)
- 이상곤 모친상(2012.1.2)
- 이영택 부친상(2012.2.3)
- 박상준 본인상(2012.2.9)



제 62 회

■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2011년 12월 2일(금)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많은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동문동정

- 송종호 중소기업청장 취임(2011.12.5)
- 이현희 구미경찰서장 취임(2011.12.22)



제 63 회

■ 오오등 행사

63회 동기회는 2011년 5월 5일, 서울과 대전 동기들까지 총 74명이 함께 오오등 행사를 갖고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고리산으로 산행을 떠났다. 산행 후에는 추소리 이장 댁에서 닭도리탕으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대청호 호수 부근의 명승지 추소정과 부소담약을 관람하고 돌아왔다.

■ 정기총회



2011년 12월 3일(토) 그랜드 호텔 지하 리젠시 홀에서 오후 6시 30분, 63회 동기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많은 동기및 동기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 동문동정

- 박종관(DOW 산업 대표이사) 2012년도 충북지역 기업인 회장에 선임

■ 경사

· 남명우 일식집 “일정” 개업(2011.10.27)

■ 부고

- 이상태 본인상(2011.6.29)
- 김경진 모친상(2011.7.17)
- 현진석 부친상(2011.7.18)
- 김연태 모친상(2011.7.19)
- 허 양 모친상(2011.7.26)
- 허중구 장인상(2011.9.12)
- 이택희 부친상(2011.9.24)
- 현순명 모친상(2011.11.3)
- 오명기 부친상(2011.11.22)



제 64 회

■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2011년 12월 9일(금) 7시, 범어동 그랜드호텔 2층 파인홀에서 64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2년도 동기회 발전을 위한 다짐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 동문동정

- 구본태 포항ROTC로타리클럽회장 취임(2011.6.21)
- 김찬휴 청도 이서중학교 교장 취임(2011.9)
- 현병호 세무사 사무실 이전(2011.10.5)
- 강석봉 대구한의대학교 시립문경요양병원장 겸임
- 이병환 경상북도지사 비서실장 취임

■ 부고

- 이재봉 부친상(2011.9.14)
- 한학동 모친상(2011.11.12)



제 65 회

■ 동기 반별 골프대회 및 워크샵

2011년 5월 21일~22일 1박 2일 간 문경C.C 수안보로 동기 반 별 골프대회 및 워크샵을 다녀왔다.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우의를 나누었다.

■ 65산우회



65회 산우회에서는 매월 정기산행을 가진다. 56차 산행은 포항운제산으로 다녀왔으며 이날 산우회 총회를 갖고 산우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 제1회 친선족구대회

지난 7월 9일 65회 동기회는 동변중학교에서 제1회 친선족구대회를 갖고 오랜만에 땀을 흘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총동창회 기수별 골프대회 참가

7월 15일 총동창회 기수별 골프대회에 참가한 65회 동기회는 개인우승과 종합우승을 거머쥐며 계성골프의 강자로 우뚝 섰다.

■ 집행부 단합대회

8월 13일 65동기회 집행부는 팔공농원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를 계기로 동기회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 개교 105주년 계성동창 가족체육대회 참가

지난 10월 개최한 계성동창 가족체육대회에 참가한 65동기회는 OB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 송년회

12월 3일 유성스포츠프라자 연회실에서 65동기회 송년회를

기/별/소/식

갖고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 동문동정

-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선임(2011.9.14)
- 정재관 육군준장진급(국방부국회협력단장)(2011.11.15)
- 구자일 구병원 원장, 삼성병원과 의료협력체결(2011.12.21)
개원20주년 기념 행사

■ 경사

- 남시흥 장남 결혼식(2011.10.2)

■ 부고

- 정인한 빙모상(2011.5.22)
- 윤우용 빙모상(2011.5.31)
- 박종걸 빙모상(2011.6.14)
- 박노화 빙모상(2011.7.23)
- 김원식 빙모상(2011.8.20)
- 구 정 모친상(2011.9.21)
- 사창동 부친상(2011.10.11)
- 김원식 모친상(2011.11.1)
- 김호련 빙부상(2011.11.21)
- 강면욱 빙모상(2011.11.27)
- 전용석 모친상(2011.12.13)
- 이병묵 빙부상(2011.12.30)



제 67 회

■ 동문동정

- 조영원 포항송도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취임(2011.6.24)



제 68 회

■ 졸업30주년 기념 은사의 밤



11월 19일(토) 오후 6시 호텔 인터불고에서 '졸업30주년 기념 은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 동문동정

- 박병진 동포항라이온스 회장 취임(201.6.14)

■ 부고

- 김수환 모친상(2011.11.21)



제 70 회

■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12월 17일(토) 오후 6시, 그랜드 호텔에서 70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거행되었다. 50여명의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1부 총회에서 2011년도 업무보고와 결산, 그리고 동기회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토의를 가진 후, 2부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동기생들 간의 즐거운 대화 속에서 우의를 나누며 화기 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 부고

- 김형곤 부친상(2011.7.12)



제 71 회

■ 동문동정

- 김정두 목사, 위임예배(2011.5.14)
- 홍헌득 매일신문 편집부장 승진(2011.9.7)
- 이용배 청송경찰서장 취임(2011.12.29)



제 72 회

■ 동문동정

- 김기현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 영전(2011.9.1)
- 김기영 오븐구이치킨호프집 맥그릴황금점 오픈(2011.10.24)



제 73 회

■ 홈커밍데이



계성 73회 홈커밍데이 행사가 2011년 10월 22일(토) 오후 1시부터 모교에서 김재현 고등학교 교장, 손용식 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50여분의 은사님들과 200여명의 동기생, 부인들이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 1부 행사는 남정완 동기의 기도와 이병구 총동창회장님의 공로패수여 및 김재현 교장선생님의 감사패 수여가 있었으며 은사님들에 대한 기념품 전달과 후배들에 대한 장학금 이천만원을 전달하였다.

TBC리포터 한기웅씨의 사회로 진행된 화합 한마당에서는 한기웅 리포터의 재치 있는 입담과 독순이 선생님(장현순)이 맨발로 댄스를 추시는 열정에 힘입어 은사님들과 동기생 및 부인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랜드 호텔에서의 화합한마당을 마치고 나서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끼리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성 73 홈커밍데이 행사를 깔끔하고 멋지게 마무리 했다.



제 75 회

■ 동문동정

- 장상근 스피드꽃집 확장 이전(2011.10.27)



제 77 회

■ 송년회



12월 17일 오후 7시부터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우생식당에서 77회 송년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4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한 해 동안 고생한 한동원 회장의 송년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2012년도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신임회장에 이태원 동기, 부회장에 정지윤, 추연구, 김봉수, 이동엽, 전병덕 동기가 선임되었고, 총무에 피재순, 이재창 동기가 동기들의 성원을 받으며 선임되었다.



제 79 회

■ 신년교례회



1월 7일(토) 그랜드호텔에서 79회 동기회 신년교례회를 갖고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 동문동정

- 이남수 법률사무소 개업(2011.4.15)

동기 소식 가장 열심히 전하는 '모범' 49회

'동기회 회보' 163호나 발간, 선교신우회보도 15호째

49회(회장 설춘수)가 동기회 회보를 163호나 발간하였다. '교문을 떠난 지 벌써 50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친구-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변할 수 없는 우리들의 우정 아니겠습니까?'로 시작되는 회장 인사를 시작으로 12쪽에 걸쳐 알곡 같은 내용으로 가득찬 소식지(편집인: 임병용, 신갑훈)를 받아본 동문들은, 49회가 아니라도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데!

2면을 펼치면 '그간의 친구 소식'이 빼곡 실려 있다. 아직도 계성산우회에 달마다 참석하고 있는 강일영, 올 3월에 수성아트피아에서 창작곡 발표회를 열 강중수, 대구미술관 개관기념 2부 전시회를 2월 12일까지

열고 있는 권정호, 미국 미주리대 교수에서 퇴직 후 텍사스 달라스로 이사한 김기상, 주소가 바뀐 김동수 김우용 김제원 이명조, 은퇴 소식을 전하는 김동혁,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김성식 서장수 진광수, 미국에서 여전히 목회 중인 김성철, 트로트신동 외손자 이준호의 매니저 김재민, 미국에서 박사와 의사로 있는 아들과 자부를 방문하고 온 김종규, LA새문안교회 담임목사 김종원, 모친상을 당한 김주승 장효건 최희성, 동기회 사무실 전기공사를 해준 김택중,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김정, 약국을 옮긴 노동섭, 밴쿠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류창식, 부친상을 당한 박규하, 이춘우, 잠깐 귀국했다가 돌아간 박준근 장학수, 친구들과 미국 서부여행을 다녀온 박태민, 포항 극동방송 운영위원 서중수, 연예인 공연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석영균, 차녀 결혼식을 치렀고 아들이 충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송영환, 아들 결혼식을 한 신준식과 이경옥, 워싱턴에서 만난 지광남 정해준, 부인이 동기회 사무실에 종종 음식을 만들어 보내주는 조영보, 라오스에 그림을 그리러 다녀온 허실, 남몰래 1억원 이상의 기부를 해온 '위대한 기부' 신문기사 속의 주인공 최병부...

친구 소식이 끝나면 2011년 임원 명단, 후대전화 변경 안내, 거의 900만원에 육박하는 예산안, 사무실 위치와 전화번호(763-6249)이 이 어진다. 1월 13일 오후 6시에는 설춘수 동기회장이 경영하는 리틀베어(두산동) 3층에서 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연다는 소식과, 총회 내용 및 지난 1년 사업보고 내용도 실려 있다. 그리고 연회비 및 찬조를 한 명단(535만8천원)과 사무실 이전시 협찬동기 명단(280만원)도 빠짐 없이 게재하고 있다. 소식지의 마지막은 교가로 장식되어 있다.

49회가 발행한 '계성49 선교신우회 회보'(편집인 이창식)도 벌써 15호째 발행되었다. 이래저래 49회는 동기들의 소식을 가장 열심히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동기회로 자타의 공인을 받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재경동창회

■ 제27회 재경계성가족친선체육대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잔디구장)



6월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잔디구장에서 올해로 27번째를 맞은 재경계성가족친선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윤동한 회장, 이병구 총동창회장 김태동 재단이사장, 김재현 교장, 김용태, 이시원, 김웅길, 조준제 동문 및 1,500 여 동문이 참석하였다.
O.B 우승(59), 준우승(62), 3위(61) Y.B 우승(74), 준우승(69), 3위(66)

■ 이형섭(35)원로의 부고

6월 30일 윤동한 회장 외 사무국 동문들은 이형섭 원로의 부고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왔다. 30일 영결식까지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추도했다

■ 2011년도 재경계성고등학교 하계 교직원 연수회

7월 19일 한국콜마 서초사옥에서 재경계성고등학교 하계 교직원 연수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윤동한 회장의 초청으로 간담회를 열었으며 사무국 동문들 외 계성고 교직원이 참석하여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 제5차 재경계성조찬포럼

서울팔래스호텔 지하1층 다이너스티룸에서 9월 27일 제5차 재경계성조찬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강연은 한국전략리더쉽연구원 원장 노병천(62) 강사가 “계성 이순신 최강조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80여 동문이 참석하여 재경계성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 Hi-계성서울 5호 발간

9월 27일 이재식(56) 동문의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라는 권

두언과 재경계성동문 인사 및 동정과 동호회활동 등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였다.

■ 제20회 재경계성동창회장배 기벌대항 골프대회

10월 10일 여주 세라지오CC에서 제20회 재경계성동창회장배 기벌대항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윤동한 회장님 외 사무국 동문들 및 기벌로 22개팀이 참가하여 기량을 뽐냈다.

■ 대구주체 10월 합동산행



10월 16일 충북 옥천군 장령산에서 윤동한 회장 외 재경동문 150여명과 사무국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산행을 가졌다.

■ 재경계성동창회장배 기벌 바둑대회

11월 19일 양재동 계성 기원에서 각 기벌 대표선수들과 사무국 동문들이 참석하여 기벌 바둑대회를 가졌다.

■ 2011년 산타스포츠편제5km

12월 10일 올림픽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산타스포츠편제5km에 계마회 및 재경계성 동문들이 참여했다.

■ 재경계성동창회 산하단체임원 원년 송년회



12월 13일 역삼동 영덕막회에서 윤동한 회장 외 산하단체임원

지/역/별/소/식

25여명과 사무국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2012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안내

- 일시 : 2012년 2월 13일(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 강남구 역삼동 "상록 회관" 5층 다이아몬드 HALL
T)560-2222 지하철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도보5분
- 안건 : 2011년 활동 과 회계보고 및 2012년 예산 심의 및 임원개선
- 회비 : 없습니다.



부 산 지 부

■ 상반기 체육대회 개최

2011년 5월 14일 회동수원지 둘레길(은행나무집)에서 부산지부 상반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동문 및 부인 등 4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트래킹, 족구대회, 노래자랑 및 경품추첨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하반기 임원회의 개최

11월 10일 낙동강오리알 식당에서 각 기수별 대표가 모여 정기총회 및 송년회 계획에 대해 토의를 나누었다.

■ 2011년 송년회 개최



12월 20일 오후7시 선뽕페에서 부산지부 송년회를 개최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많은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부 총회에서는 신입회장으로 오진일(56회) 동문을 선출하였

으며, 이어 2부 여흥의 시간에는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등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청 도 지 부

■ 정기모임

청도지부는 올해 모두 4차례(2월 18일, 5월 2일, 9월 5일, 12월 5일)의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 송년회



지난 12월 5일 청도지부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종복(59회) 지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청도지부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특히 이날 송년회에는 모교 교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김재현 동문(59회)이 참석하여 모교를 위한 협력과 기도를 당부했다.



칠 곡 지 부

■ 정기총회 및 송년회



재칠곡 계성고 동문회 송년회가 지난 12월 16일 이인기(국회



의원) 동문, 김정길 계성학교총동창회 사무처장,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산면 송광매원에서 열렸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서광수 동문화장 등이 신임 박세원(56회) 회장 등으로부터 감사패와 공로패를 각각 받았다. 재철곡 계성고 동문회 박세원 신임회장은 취임인사에서 "새벽 하늘에 계명성(啓明星·금성)이 밝게 빛나고 있고, 칠곡에는 재철곡계성동문회가 굳건히 자리잡아 자부심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계성동문을 볼 때 행복하다"며 "우리 동문회가 이어 가야 할 고귀한 전통과 칠곡 계성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고심하면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 남 지 부

■ 정기모임

충남계성동문회는 천안, 아산 지역 동문을 중심으로 40여명의 회원이 격월로 행사를 갖고 있으며 20여명이 꾸준히 참석하여 동문애를 다지고 있다.



예 천 지 부

■ 정기모임

지난 10월 25일 예천궁에서 동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모임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포 향 지 부

■ 신임회장단 상견례

7월 18일 포항지부는 신임회장단 상견례 자리를 갖고 포항지부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 제19회 재포 계성동문 가족체육대회 겸 정기총회

2011년 6월 6일(화) 포항 우현동에 위치한 대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9회 재포 계성동문 가족체육대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75회 동기회와 총무단이 공동 주관했다. 오전 10

시부터 시작된 체육대회는 선후배가 한데 어우러져 동문들 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체육대회에 이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포항지부 동문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한 후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LA 지부

■ C'est Si Bon 콘서트



7월 23일(토) C'est Si Bon 콘서트에 동문 40여명이 참석하여 좋은 만남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총무 이태영, 우재영 동문과 서기 백원규 동문, 그리고 특별히 이봉수 전 총무의 도움이 컸으며 많은 동문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 골프모임 총회 개최

10월 30일 계성골프 모임 총회에서 2012년도 새로운 골프 회장으로 이봉수(65회) 동문이 선임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LA동문회장 권태운(50회)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지/역/별/소/식

■ 2011년도 송년회 및 총회



12월 10일(토) LA지부는 박준환(37회) 이사장 자택에서 송년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70여명의 많은 동문 및 동문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다가올 2012년도 LA지부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나누었다.

■ 2012년 신년회 안내

LA지부는 오는 2012년 1월 25일(수)에 신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뉴 욕 지 부

■ 2011 Memorial Day KS Picnic

2011년 5월 30일 Rockland Park에서 2011 Memorial Day KS Picnic 행사를 개최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환 부부, 서삼덕 부부, 김신열 부부, 정대식 부부, 박치경 부부, 서희수 부부, 박동화 부부, 박창현 부부, 박무희 부부, 박노태 부부, 장재동 가족 총 24명이 참석하였다.

바비큐와 맥주, 포도주를 곁들인 런치를 시작으로 동문 가족들이 정성으로 가져온 반찬과 과일들을 함께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처음 오신 김재열(48회) 동문가족과 한국에서 곧바로 행사장으로 달려온 박동화(57회)

동문가족이 있어 정겹고 단합된 행사가 되었다. 박치경(49회) 동문의 박식한 시사 만평과 서삼덕(47회) 동문의 만담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특히 모든 동문들의 관심사인 "삶"에 대해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주제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 집행부를 이을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시 카 고 지 부

■ 김상영 선생님과 만남



2011년 12월 1일 저녁, 시카고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워싱턴D.C에 거주하시는 김상영 선생님께서 동참하시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60회 손대곤 동문이 11월 27일 시카고에서 딸 결혼식을 개최하였는데 손 동문의 고모이신 손복희 권사님(김상영 선생님 부인)과 함께 오셨다가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모임에는 박순호, 박해달, 이상기, 권기서, 김성호, 이광삼, 손오곤, 김광호, 김왕기, 손대곤, 이호섭 동문이 함께했으며 이날 처음으로 69회 박진수 동문이 참석하여 환영을 받았다.

재부계성동문회 회장을 맡으며



부산지역 회장
오진일 (56회)

1976년 가을쯤, 그 때는 백여명이 모인 참석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막내였다. 공직이나 기업, 교육, 금융, 병원 등 여러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지도자급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지금은 부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위상이 많이 격하되었지만, 1970-80년대에는 항상 수출 1,2위를 다투던 동명목재와 국제그룹, 성장기업, 연합철강등 대기업의 임직원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사와 교수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와 약사동문, 중소기업 대표들이 즐비했다. 그리고 해마다 대구에서 우수한 동문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진출했다.

특히 전국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고교축구팀이 부산으로 원정경기를 올 때면 수백명의 선배동문들이 구덕경기장으로 응원을 가고, 우승컵을 안은 후배들에게 격려금을 주며 축하해 주었다.

재부동창회 명부를 만들면 모든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750여명의 동문들이 포진해서, 인적네트워크의 풍부함과 친밀함으로 타학교출신들의 부러움을 샀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쯤, 선배님이 교장으로 있던 해운대 기계공고에서 운동회를 하면 수백명의 동문가족들이 다양한 운동경기와 게임으로 하루를 축제분위기로 마음껏 즐겼다.

경기를 진행시키는 체육교사와 교수만 해도 7-8명이 되었고, 그 당시 인기쟁이였던 젊은 아나운서 왕종근을 쫓아 다니며 재미있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아버지, 엄마가 되었다.

나의 누님과 큰 형수는 76세의 실버, 멋쟁인데 두 분이 경북여고 동기이다. 한번은 50주년 홈커밍행사를 위하여 단체로 서울에서 부산에 버스를 타고 오던 중 차내에서 일제히 계성학교 교가를 제창하며 흥을 돋우었다고 한다. 소시 때 부터 50년이 지났음에도 가사도 잊지 않고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옛날에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 대항 운동경기 때 마다 귀에 박히도록 들은 승리의 함성이었기 때문이다. 공부도 잘 하고 운동실력도 뛰어나고, 매너도 스마트한 계성건아들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음에 틀림없다.

나이가 많이 드니까 자꾸 옛날 기억을 떠올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현실이 힘들고 짜증스러울 때마다 한 알의 마취제를 먹듯이 파스함이 가시지 않은 화투불을 뒤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동창회의 행사가 기다려지는 설렘과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어느덧 우리 기수가 중요한 회장직을 맡아야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직전 회장이 작년 12월 정기총회의 일자를 일주일 앞두고서 전화를 했다. 후임회장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강력한 압박이고 구속이었다.

나 역시 한참이나 망설였다. 세상 적으로 잘 나가는 학교 동창회장 자리는 돈을 쓰고 선거운동 하듯이 서로 하려고 한다는데...

어쨌든 우리 동기생들끼리 의논을 하고 그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내가 총대를 메기로 했다. 그리고 이왕 맡을 바에야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책임을 다 하기로 결심을 했다. 大 계성학교의 재부동창회장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자랑이 아니겠는가?

지금 젊은 동창생들의 수가 적다는 것이 재부동창회의 심각한 고민이다. 유능하고 똑똑한 청년들을 부를 직장이나 메리트가 부산에서는 이제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수별로 모임이 잘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60대기수 후배님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지난 과거의 아름답고 즐거웠던 재부동창회의 부활과 재건을 위해 수고할 해가 몇 년 남지 않았음을 알고 시간을 아끼며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대화합의 날을 만들자고, 이 만큼의 명성과 전통을 쌓아 준 선배님에게 미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후배가 되어보자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다.

“계성 계성 만세라, 우리 계성 만세라, 만만세!”



목 장 회

■ 제1회 정기총회



목사, 장로 모임인 계성목장회는 지난 5월 30일(월) 오후 5시 계성교회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60여명의 많은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해 목장회의 발전방향과 총동창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 기도회



10월 20일 예광교회에서 많은 목장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를 갖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 발기모임



12월 26일 재경계성 목장회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모임을 가졌다. 다함께 기도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2012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법 조 동 문 회

■ 정기총회

12월 5일(월) 강촌식당에서 법조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60회 이선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동/호/회/소/식



계성동문축구회

■ 대구FC와 7월17일 수성중학교에서 축구 클리닉 교실 운영.



■ 하계합숙훈련



2011년 8월 12일~14일까지 3박 4일간 양남중학교, 수력원자력발전소 內 인조구장에서 하계합숙훈련을 가졌다.

금번 합숙훈련 행사에는 61회 이정현 동문부터 98회 후배 선수들까지 총 35명의 각 선수들이 참여하였으며, 후배들에게 축구 이론 및 전술과 다양한 기술을 모교 축구부 출신인 67회 양준철 동문이 전수하였다. 특히 행사를 통해 양남중학교 홍성찬(65회) 교감 선생님께 교내 불우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 행사는 지난 35년간 지속적으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실시해왔다.

■ 중구 청장기 축구대회 참가

9월 25일 강변축구장에서 중구청장기 축구대회를 20대 50대 두 팀이 모교의 명예를 걸고 참가하여 기량을 뽐냈다.

■ 대구FC와 제주FC의 축구경기전 오픈 경기



제주FC 박경훈(청구고)감독과 기념 촬영



계성마라톤회

■ 총회 개최

지난 12월 17일 황금동 소재 오리아저씨에서 2011년 계성마라톤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30여명의 회원 들이 모여서 지난 일년간의 달림이 생활을 되돌아보고 소주잔과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화기애애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난 2년간 계성마라톤회 회장으로 수고해주신 57회 고동헌 회원의 '마라톤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아름답다'는 축하의 말씀과 건배제의로써 한해를 마무리 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차기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2012년부터 2년간 수고해 줄 회장으로는 58회 이상곤 회원이, 사무국장은 71회 추쌍엽 회원이 선출되었다. 두 회원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특히 젊은 계성마라톤회 회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청 맥 회

■ 종교반 <청맥> 동아리의 역사와 현황

I. 서(序)

'청맥회(靑脈會, Chungmaek Society)'는 대구 계성고등학교에서 1960년 3월, 당시의 국어교사였던 윤혜승(尹惠昇) 시인(이하,창립 고문)께서 학생회 종교반의 동아리(circle) 중 하나로 1,2학년에 재학 중인 총 25명(제2학년 15명, 제1학년 10명)을 중심으로 '청맥(靑脈)'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그 표어는 "나를 바로 알자, 남을 귀히 여기자, 맡은 책임을 다하자"라는 세 가지 항목이었으며, 또 회가(會歌)

동/호/회/소/식

는 유혜승 고문 자신의 시(詩)인 “산과 들에 뿌리는 비, 그 줄기 비록 약하나...”로 정하여 모일 때마다 그 표어와 회가를 제창(提唱)하였다. 처음에는 각 동아리마다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없어서 학교 안의 여기저기로 옮겨가며 모였다. 다행히 청맥은 지도교사인 윤혜승 선생님이 대구 YMCA 이사(理事)였던 덕분에 매주 말(토요일 오후)에 대구 YMCA에 고등학생 서클로 등록하고 방을 하나 얻어 모임을 계속하고, 그 이름도 ‘청맥 하이와이(High-School YMCA)’로 부르게 되었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그 모임과 활동을 계속하도록 ‘청맥 대학와이’를 창설한 것은 1973년 3월로 본인이 계명대학에 진학했을 때 몇몇 선배님들과 의논하여 본인이 창설하였다. 그 우정(友情)의 맥(脈)을 이으면서 주로 후배 하이와이드를 지도하며 ‘청맥 동지회’로 진입할 준비도 하고, 이미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지역사회 및 세계적인 리더로 활동하고 계신 청맥회 선배님들을 가끔씩 초빙하여 특정한 분야의 강의도 듣고, 필요시에 적절한 도움도 받는 끈끈한 관계를 〈청맥회지〉와 〈청맥 장학회〉를 통하여 계속되었다.

II. 청맥회 그룹별 맥우 명단

1906년 10월 15일 개교한 계성학교의 역사와 함께 ‘청맥’ 동아리의 역사도 1961년부터 매년 10명 안팎의 신입생들을 선발하여 그 활동을 계속해 왔다. 2000학년도, 제90회 입학식 때부터 12개 학급 중 3개 학급을 여학생으로 모집하여 처음으로 이른바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된 계성고등학교에서 청맥 동아리도 제41대(代)부터는 여학생 회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하에 청맥 동아리의 각 대별(代別, 기수별) 명단은 아래와 같다.(이들을 5년 단위로 끊어서 알파 그룹, 베타 그룹, ... 등으로 나누자고 한 것은 본인이 1973년에 ‘대학부 청맥’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을 때 처음 제안한 것인데, 나중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우선 여기서도 그렇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알파그룹(초대~5대 총 44명)

- 초대(初代=계성 50회, 1960년 입학): 김동하, 김순일, 김철, 도종태, 도태균, 서홍하, 신선희, 신현구, 이판태, 전태진, 정무흠, 조재충(故), 조현웅, 하죽봉, 홍은 등 15명.
- 이대(二代=계성 51회, 1961년 입학): 강기영(故), 김신근, 박영환, 박훈, 배수득, 이문희, 이상훈, 정윤, 조규목, 최명용, 한기식 등 10명.
- 삼대(三代=계성 52회, 1962년 입학): 김응태, 도성태, 손양삼, 우병각(故), 유윤철, 이길용, 하희봉, 한기근, 한태영 등 8명.
- 사대(四代=계성 53회, 1963년 입학): 강성득, 김경남, 김준환, 이병택, 이상욱, 이영식, 임영수 등 7명.
- 오대(五代=계성 54회, 1964년 입학): 류장발, 백상흠, 이세일, 이무호 등 4명.

■ 베타그룹 총 56명, 누계 100명

- 육대(六代=계성 55회, 1965년 입학): 강명철, 김재원, 김대환, 김두호, 김익태, 김향윤, 박종원, 신한순, 안동철, 이돈용, 전호철, 정경호, 정익태, 정인재 등 13명.
- 칠대(七代=계성 56회, 1966년 입학): 김두경, 김병일, 오진일, 이상화, 이원영, 이재식, 차재봉, 하차대 등 9명.
- 팔대(八代=계성 57회, 1967년 입학): 강석우, 김홍진, 권영필, 남두기, 박상태, 배규한, 이근수, 이정권, 이채언, 허왕태, 허운석 등 11명.
- 구대(九代=계성 58회, 1968년 입학): 김동훈, 김영민, 김영식, 김주일, 신원희, 이근우, 이종갑, 채승용, 허신열, 황윤태 등 11명.
- 열대(十代=계성 59회, 1969년 입학): 김동수, 김인길(故), 노원현, 배도환, 이인기, 임주재, 전대천, 정연길, 정희두(故), 최동규, 최현석 등 12명.

■ 감마그룹 총 72명, 누계 172명

- 십일대(十一代)=계성 60회, 1970년 입학): 김무진, 김영곤, 서정욱, 신익, 이동선, 이무환, 이상문, 이효극, 전태돈, 조봉, 조영주, 최부돌 등 12명.
- 십이대(十二代)=계성 61회, 1971년 입학): 김대열, 김봉갑, 김상대, 김중재, 이용철, 이현복, 이호상, 장성진, 정만진, 조태현, 진철찬 등 11명.
- 십삼대(十三代)=계성 62회, 1972년 입학): 강명수, 권한수, 김영택(故), 김우상, 김재호, 박승균, 박은수, 손기수, 신진희, 이구연, 이기식, 이명도, 이원기, 이윤갑, 이정원, 이종수, 임종찬, 하병기 등 19명.
- 십사대(十四代)=계성 63회, 1973년 입학): 김철영, 김철한, 김충열, 남영로, 박정태, 반응음, 윤일현, 조진현, 조현상, 천병윤, 10명.
- 십오대(十五代)=계성 64회, 1974년 입학): 박인환, 김동일, 김진석, 김충열, 이명로, 이형기, 정봉진, 주응준, 정선광, 하종만 등 10명.

III. 청맥 동아리와 계성학교 신문 〈계원(啓園)〉과의 관계

지난 호 〈계성동창회보, 제55호〉(2011.5.15.) 제19면에는 제50회 조재충 동문의 작고(作故)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바로 청맥회 초대(初代) 맥우(脈友)로서 윤혜승 선생님과 함께 계성학교 신문 〈계원〉을 창간하였고, 지난 2001년 9월 25일에는 대구 수성구 가창리에서 고(故) 두산 윤혜승 장로의 제1회 추도예배와 詩碑 제막식을 주관했었다.

(집필 60회 서정욱 목사 010-2360-3889)

풀의 꽃과 같이

박재천(50회) 동문

들 풀을 아는가
들 풀이 바람에
비스듬히 누울 때
꽃잎 몇 개가 흠에
닿아 있음을

잠시 먼저 시들고
의미 없이 사라질 때
하늘은
노을 붉은 잔치로
환상에 젖는다
풀의 꽃과 같은가
인생은

빈것

빈 그릇의 가득한 포만감
빈 의자에 걸친 피곤한 다리
빈 방에 가느다란 햇살들의 잔치
진 마음에 넘치는 행복
빈 것의 아름다움
내 빈 가슴 채우네

박재천 치유시집 <존재의 치유>가 발간되었다. 목양문학 대상, 한국창조문학 대상, 기독교 출판문화 대상을 받았으며, 한국가정사역학회장으로 신학대학원에서 전인치유를 강의하면서 각종 집회 세미나를 600여 회 인도하였고, 현재 연흥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번 치유시집은 '하늘이 하늘 문을 열고, 바다가 하늘 향해 가슴을 열고, 내가 하늘의 품, 바로 창조주의 품에 안길 때 행복한 치유자가 된다는 진리를 노래하고 있다. (시인과의 대화는 010-7704-7272)

자연치유능력 배양 BB운동 서복섭 동문(31회)

“몸의 균형은 건물의 균형과 같은 것이지요”

“고령의 늙은 동창이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는 ‘집 안에 쥐 안 잡는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생기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비록 활발한 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선배가 있으면 조용한 질서가 유지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31회 대선배 서복섭 동문.

현재도 매년 일본 요스가와온천의 초대를 받아 강연과 도수요법(徒手療法) 시술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구전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치료를 해주신다. 한국균형체육학회 회장, 한국활기도교정협회 총재, 수원대 체육학과 균형체육학 교수, 한국합기도회 회장, 한국합기유권술협회 총재, 미국LA유인한의학대학 초청강사, 한국요가협회 고문, 합기도 9단, 경희대학교 부설한의원 물리치료실장... 등의 경력이 서동문의 능력을 증언해준다. 서 동문의 선친께서는 국회 5대 외무위원장을 지내신 서동진 민주당 의원이다. 대구갑구에서 3대 이후 연속 당선되었는데 이승만 정권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야당생활을 하셨다. 서 동문 본인도 1961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한 바 있다.

1924년 4월 2일 대구에서 태어나셨고(중구 수동 62) 대구공립보통학교 6년(1937년 졸업), 계성중학교 5년(1943년 졸업),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경상대 3년(1946년 졸업), 대구대(현 영남대) 법학과 4년(1955년 졸업)의 공부를 마쳤고,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26세의 나이에 남선경제신문과 대구매일신문의 취재역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 동문은 한국 최초의 합기도 도장을 개설한 역사의 주인공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양조합자회사 사장으로서 탁주, 약주, ‘불란디’의 면허를 미군정 때 처음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했으며,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험양조 명목으로 탁주제조를 시작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최초로 석고붕대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아 당시 군수품 유통이 엄격히 차단된 사회개혁 풍토에 힘입어 전국 큰 병원에 선풍적 인기를 끌며 공급하였던 의료사업가이기도 했다.



일본에서 강의 중



미국에서 강의 중

Q. 의료계의 기린아가 되어 국민건강증진 전도사가 된 배경을 소개해 주신다면?

A. 발명특허를 얻은 석고붕대의 발명이 계기가 되었지요. 합기도 9단이다 보니 평소에도 다친 사람들 치료에 관심이 많았고 고칠 줄도 알았는데 석고붕대를 발명하고 나니 정부에서 국내산업 대표단으로 일본엑스포70을 시찰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다시 독일하여 수기정채요법을 일본 전역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되었고, 일본의 이름 높은 인사들과 기술교환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기(手技)카이로푸라틱과 정채기공요법을 일반대중에게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대, 경희대, 단국대 등에 대학 강좌를 개설하여 18년간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했지요. 경희대학교 체육과 졸업생들 주례는 제가 가장 많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허허.

한국 최초의 합기도 도장 열었고, 도수요법 보급을 필생 과제로 삼아

Q. 도수요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그리고 고충과 보람도 말씀 해주시고요.

A. 일본에서는 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제화가 미비하여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도수요법은 건축의 바란스와 인체의 바란스가 동일하다는 데 근본을 두고 있는데, 몸의 기초인 골반이 비뚤어지면 어깨, 얼굴, 입, 목이 다 비뚤어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목소리의 허스키나 두통, 견미통, 모든 종류의 디스크 돌출증까지, 나아가 생리통, 불임증을 비롯하여 현대서양의학에서 수술을 요하는 많은 것들을 관절 바로 잡아주기를 통해 고치는 의료기법이지요. 대체의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침, 약, 주사, 경락지압 등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흔히들 '서복식식 균형체육'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어약자로는 SBS, 또는 BB운동이라고 합니다. S는 제 이름의 이니셜이고, BB는 바디바란스를 뜻하지요. 제자도 많이 키웠고, 아픈 이들도 무수히 치료해주었는데,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3년 전 은퇴를 하고 공기 좋은 남양주 마석에서 지냈습니다만, 어디서 듣고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통에 할 수 없이 서울에서 안 봐줄 수 없는 분들만 맞고 있습니다.

Q. 그래도 계성동문들이 병원에서 안 되어 선배님을 찾는다면 어찌시겠습니까?

A. 옛날에 우리 동창회에 부회장이 한 사람일 때 내가 최초로 젊은 나이에 부회장까지 했는데... 사람 몸의 균형을 맞추어 고통을 없애는 자연치유능력을 복돋우는 것이 내 필생의 과업인데 계성 동문이 부탁한다면 봉사를 해야지요. (전화 02-584-6683, 583-6424 010-8256-6683, 서초구 서초3동 1547-4 에덴빌라 104호)



최고 원로 무술인 대상 수상

Q. 모교 재학시 재미있는 추억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지요.

A. 학교 다닐 때 욕심이 무척 많았어요. 5년 개근도 했고, 백태호, 김우조, 추연근 선배, 김창락 동기, 변종하 후배와 함께 서진달 선생님께 그림을 배웠고, 정덕장, 추중구 선배, 윤정균 동기와 함께 최영호 선생님께 유도를 수련했고, 박태준 선생님께 약기를 배워 학교행사 때 나팔수 대장도 했고, 운동회 때는 항상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올랐지요. 1942년에는 겨울부터 음향통제가 실시되어 수업이나 조회를 내가 나팔을 불면 시작했는데, 선후배 동기들이 등교를 하면서 나만 불들면 지각을 면한다하여 내 앞길을 가로막고 옷을 잡아당기고 했지요. 허허허. 계성학교 2학년 때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근 4년 동안 우산 없이 학교를 다녔지요. 집안 형편은 아주 좋은 편이었는데 그게 나의 결심이었을까, 개성이었던 것 같아 아직도 기억에 새롭군요. 동기생 이국동 혼자만 아는 일화지요. 가족들도 아무도 몰라요.

Q. 가족 소개도 해주시고, 동문들에게도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아들 넷인데 셋이 장로이고, 장남 차남은 영어학원을 하고 막내는 레이건초상화를 그린 미국의 유명화가이지요. 딸은 농학박사로 서울대에 있고, 나는 지금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생활합니다. 동문 여러분들 모두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장학금 기부 등 모교 후진발전에 이바지를 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동창회 행사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단결과 관심을 열심히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각양각색이지만 뿌리는 다 모교 아니겠습니까.

롯데슈퍼 세븐일레븐 2개사 대표이사 소진세 동문(55회)

“어려울수록 성취하고 나면
보람은 더 크지요”



55회 동문인 롯데슈퍼 소진세 사장, 그는 재계의 유명 경영인이다.

소 동문은 현재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인 롯데슈퍼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2개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렇게 2개사를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는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는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이는 소 동문이 그만큼 뛰어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롯데슈퍼는 2011년 예상 연매출 2조 5천억에 점포수가 650개가 되는 대규모 유통회사이다. 정규직원만 헤아려도 1,800명이나 된다. 또 롯데그룹 직영 편의점인 세븐일레븐도 2011년 예상 연매출 2조 5천억에 점포수가 무려 6,300개가 된다. 편의점이니까 개인사업자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세븐일레븐 본사는 정규직원만도 1,100명이나 되는 큰 회사이다.

두 회사를 합하면 2011년 예상 연매출이 5조원, 점포수가 6,950개에 이르고, 정규직원이 2,900명이나 된다. 이 정도 규모의 1개 회사를 경영하는 책임자라 해도 대단한 일인데, 2개 회사를 아울러 이끌어가는 소 동문의 탁월한 능력은 더욱 돋보인다고 하겠다.

Q. 유통업계, 특히 롯데에 입사한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A. 월마트, 카르푸 등 세계적인 유통기업이 국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철수할 만큼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은 경쟁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통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 배워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유통업이 발전해야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요. 나는 이러한 유통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다양한 유통업을 경험할 수 있는 롯데쇼핑에 1977년 입사를 했습니다. 그 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장, 본점장, 상품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롯데백화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롯데슈퍼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가장 화려한 유통업인 백화점과 가장 서민적 유통업인 슈퍼마켓,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편의점까지 모든 형태의 유통업계를 경험한 것이지요.

Q. 현업에서 겪는 고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A. 국내 유통업계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변화의 속도가 그 어떤 업계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더

나아가 변화를 주도해야 업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끊임없이 사회와 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점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 새로운 형태의 매장, 생산업체와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신상품 등을 고객에게 내놓았을 때 고객들께서 ‘좋다’, ‘훌륭하다’하는 칭찬을 해주시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지요. 낮은 산 꼭대기보다는 높은 산 정상에 올랐을 때가 더 시원한 것처럼 말이지요.

“등산과 금연, 건강관리에는 최고입니다.”

Q. 너무나 바쁘셔서 여가도 잘 없겠지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여가 선풍 방법은 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A. 간혹 골프를 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즐기는 운동은 등산입니다. 바쁘거나 컨디션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주말에는 꼭 시간을 할애해서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즐기고 있지요. 또 철저하게 금연을 하여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늘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연합뉴스TV 사장 박정찬 동문(60회)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세상을 알리는 사람”



중학생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뱃삿을 아끼려고 포항 동빈동 수협 어판장에서 동빈 내항을 헤엄쳐 송도해수욕장으로 가곤 했었다.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넣어 머리에 묶고 헤엄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래도 수석입학과 수석졸업의 영광을 누렸고 학생회장도 맡으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컸다. 하지만 1969년 서울 명문고 입시에 실패,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았다. 그해 10월 계명대학교 주최 학력경시대회 장학생으로 선발돼 계성학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

자못 드라마틱한 10대 시절의 회고담이다. 그래서 그런가, 그는 지금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산다.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정확하고 빠르게 기사를 써서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 사원 1천여 명에 기자가 600명이 넘고, 해외특파원도 62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최대의 취재망을 갖춘 연합뉴스TV(채널명 뉴스Y) 사장이기엔 어쩔 수 없다. 60회 박정찬 동문의 이야기이다.

1978년 합동통신 기자로 입사한 뒤 합동·동양통신의 합병으로 탄생한 연합통신(1998년 12월 현재의 '연합뉴스'로 사명 변경)에서 워싱턴 특파원, 편집국장, 경영기획실장, 미디어전략담당 특임이사를 지냈다. 2009년 연합뉴스 사장에 취임했고, 지난 3월 연합뉴스가 1대 주주로 참여한 연합뉴스TV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경제금융 정보 자회사인 연합인포맥스 회장도 맡고 있다. 12월1일 뉴스Y가 개국한 뒤론 국내외의 유익하고 생생한 정보를 시청자인 국민에게 시시각각 전달하겠다는 일념으로 경영에 임하고 있다. 한국뉴스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로 '2010년 서울시 문화상(언론분야)' 수상자로 선정됐고, 2006년 '제13회 장한 고대언론인상'을 수상했다.

Q. 언론계 종사 배경과 계성 출신 언론인들 모임을 소개해 주신다면?

A. 대학시절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해오다 4학년 2학기 등교 첫날 “너는 언론계로 가서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 ভাল 것”이라는 친구의 조언으로 당시 합동통신에 입사했고, 지금까지 34년간 뉴스통신기자로서 한길을 걸었습니다. 연합뉴스에 입사해

37세에 최연소 워싱턴 특파원이라는 꿈을 이뤘지요. 이후 맡게 된 편집국장, 관훈클럽 총무, 사장이라는 직함은 저의 인생에서 덤으로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도 오로지 회사 조직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동문이 많은 것이 계성의 자랑입니다. 한종우 전 코리아헤럴드 사장(38회), 김광희 전 동아일보 이



국제보도사진전 뉴욕전 개막식 -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연합국제보도사진전' 뉴욕 전시회 개막식이 열린 8월22일 오후(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로비에서 내빈들이 개막식이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오른쪽부터 박정찬 연합뉴스 사장 내외(박정찬 사장과 김현숙 사모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순택 여사, 김 숙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 내외

사(42회), 김문순 전 조선일보 대표이사(49회), 신상민 전 한국경제신문 사장(52회), 김기웅 현 한국경제신문 사장(58회), 김왕기 전 중앙일보 이사(61회), 김병수 전 한겨레신문 논설실장(65회)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인이 '계연회'라는 정기모임을 통해 선후배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모교의 추억 중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부인 소개도!

A. 어려운 형편에도 부모님께서 공부 하라고 하숙생활을 시키셨지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첫 시험에서 전교 8등을 한 이후 한 번도 10등 내에 든 기억이 없으니까요.

학교계간지인 영자신문 편집장을 하면서 자유롭게 교문을 드나들 수 있었던 '특혜'는 지금 생각해도 괜스레 웃음 짓는 유쾌한 추억이고, 아마도 3년 동안 특설반에서 결석, 지각, 조퇴가 늘 1등이었던 '불명예 전과'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의 아내 김현숙(55)은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이자 고려대 시절 하숙 친구인 김국현(60회) 교우의 여동생입니다. 처가가 인심이 좋아 그 집에서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많이 뭉쳤고, 상경할 때나 포항으로 내려갈 때 그 집에 들러 하루 이틀 자고 가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경북여고 때 공부를 아주 잘했으나 아이

들 뒷바라지 때문에 사회생활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해외연수, 특파원 생활로 영국, 미국으로 다니며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아이를 별 탈 없이 키워준 데 대해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들딸 잘 키워준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

Q. 워낙 바쁘실 텐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며, 최근 동정은?

A. 골프(핸디 15)를 즐기는 편이며, 하루에 약 1시간 정도 피트니스센터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보도채널 출범 등 회사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막박리라는 병을 얻게 됐고, 눈 수술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 지금은 시력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총무(52대)로서 언론계 동료와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고, 관훈클럽 총무들로 구성된 신영연구기금 이사 자격으로 후배 언론인들의 연수, 출판, 저술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으로 선정돼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에 힘을 보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예향선교회 만든 신승균 동문(61회)

“두 아들 신학 대학생, 온가족이 주님 품속”

계성중학교를 61회로 졸업했다. 그러나 그해 동계진학으로 계성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고, 재수를 했으나 결국 대구 시내 모 고교를 중퇴했다.

방탕하게 살다가 공수특전단에 지원 입대했지만 거기에도 적응하지 못했다. 세 번이나 탈영을 했고, 상관 폭행 등 사고도 저질렀다. 그 후 결혼을 했으나 순탄하게 살지 못하고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여기까지는 그의 인생이 평화로운 삶과는 철저히 모순관계라는 것을 극명하게 확인시켜줄 뿐이다.

61회 신승균 동문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애는 몇 차례 역전극이 벌어지는 대단한 드라마인 법, 신 동문의 그 이후는 상상을 초월한다. 생애 전반부가 이미 일반적이지 않았듯이 후반부 또한 그에 못지않다. 다만 방향이 아주 반대일 뿐. 방향의 연속선상을 헤매던 신 동문은 박순애 전도사를 만나게 된다. 지금의 아내이다. 박순애 전도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안으로 이끌었다.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천사가 바로 그의 아내 박순애 전도사였던 것이다. 그 후 신 동문은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복무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 복음 전파가 요구되는 곳이라면 시간과 여건을 가리지 않고 달려간다. 부흥집회를 열고 주님의 품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과 빛나간 어린 양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에 모든 정열을 바친다. 방향의 늪을 철저히 배회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그의 노력은 더욱 설득력이 강하고, 눈물과 기쁨을 듣는 이들에게 생생하게 안겨준다. 대단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보았다.

Q. 신 동문의 삶에 결정적 전환을 안겨준 부인부터 소개해야겠는데?

A. 저의 아내 박순애 전도사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력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열심히 섬겼고, 예수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그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 다른 일들도 최선을 다한 결과, 은혜를 받아 한강 이북에서는 최초의 종합학원을 운영

하는 세상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학생이 1천명을 넘었으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 후 11년째 전국 골짜기 골짜기를 모두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열고 있으며, 외국에 선교활동을 나가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너무나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저 기쁘고 고마우신 일입니다.



서울 창천감리교회 장로이신 이희호 여사와 박순애 전도사는 청와대에서부터 주님 안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다. 사진은 신동문 가족과 이희호 여사가 한자리에 모여 찍은 것이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른한 살이고, 둘째는 스물아홉입니다. 둘 다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품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총동창회보에 저의 사연이 영광스럽게 소개되는 기회를 빌어 동문 여러분들과 가족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위해 밤낮 뛰니 별도의 억지운동은 필요없죠”

Q. 1년 내내 국내외 선교활동을 하려면 철저한 건강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비결은 무엇인가요?

A. 사람들은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려면 체력유지가 필수적이니 많이 먹고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나 하고 많이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레짐작일 뿐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전파를 위해 밤낮으로 움직이니 저절로 육체적 운동은 넘치고요, 마음까지 편안하니 별도로 억지운동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사람은 게을러지는 법입니다. 저는 아주 소식을 합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A. 현재 맡고 있는 경기도 고용복지지원센터 법인이사, 대한민국의학전동지회 제1공수특전여단 74한마음회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북노회 성서신학원 총동문회장 일도 더 열심히 실천할 생각이고, 특히 아내와 함께 설립한 예향선교회를 더욱 발전시켜 평생 목회활동을 하셨지만 은퇴하신 후 처지가 어려워진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을 위한 선교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청주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곧 건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후식 교장선생님, 담임이셨던 김해봉 선생님, 늦게나마 주님의 품에서 선생님들을 뵈고 열심히 밝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며 늦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대구시교육청 총무과장 박해주 동문(62회)

“국가 인재 육성사업에 종사하는 자부심”



‘한두 번 만나면 금방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항상 웃는다. 아니,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웃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도 모른다. 마주 대하는 사람의 두 손을 잡으면서 온몸으로 웃는다고 보면 연상이 된다. (중략) 교육청으로 그를 방문하면 꼭 고향의 친구를 대하듯 그의 첫마디는 언제나 “편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정겹고 편안하다.”

2010년 12월 17일자 매일신문에 ‘친절 공무원’으로 소개된 내용이다. 주인공은 62회 동문인 대구광역시 교육청 박해주 총무과장(서기관)이다. 1955년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에서 출생하여 각남초등학교, 이서중학교를 졸업한 후 계성고로 유학을 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1976년부터 고향인 청도교육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영남대 상대 경영학과와 경북대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했다. 현재 35년째 대구시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교육청 본청, 4개(동부, 서부, 남부, 달성) 교육지원청,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대구학생문화센터, 교육해양수련원, 9개 도서관(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수성, 두류, 대봉, 달성), 그리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762교, 40만1,904명의 학생, 2만1,271명의 교원, 2,855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박 동문은 그들 모두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이다. 그는 대구은행에 근무 중인 딸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있어 자녀 ‘살림’도 잘 꾸렸다는 주위의 찬사를 듣고 있다.

Q. 소속 기관도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이라면 모두가 전문가를 자처하기 때문에 고충도 많을 것 같은데?

A. 급변하는 교육행정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말씀 그대로 교육 문제는 갑론을박도 대단할뿐더러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상응하는 행

정대처가 어려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므로 시대적 변화를 주도할 경쟁력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친절 35년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헌신

Q. 청소년 시절 50계단을 오르내리던 때의 추억을 돌이켜본다면?

A.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와 함께 계성학교에 처음 간 날 아버지께서 “이 학교 크고 너무 좋구나. 공부 열심히 해라”고 당부하신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50계단을 오르내리며 ‘대구 의 명문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득 가지고 살았지요.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시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송승현 선생님께서 자취를 하고 있던 제 방까지 가정 방문을 하여 격려를 해주셨던 일도 잊지 못합니다.

Q. 105주년 역사를 자랑하는 모교에 대한 바람도 한 말씀!

A. 우리나라 근대 교육 태동기인 105년 전에 개교한 우리 계성 학교는 일제의 국가침탈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3.1 운동 당시 독립운동의 근원지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사학 명문입니다. 저는 물론 모든 동문들이 이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평준화 교육제도로 인하여 그 명성이 다소 퇴색되었다는 점이 크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옛 명성을 다시 되찾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루 속히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동창회 등 ‘계성교육’과 관련이 되는 모든 분들이 우리 계성을 명문학교로 힘차게 발돋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Q.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은 어떻게 하시는지?

A. 업무가 과중하여 별도의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데로 걷고 등산을 하고 있으며, 여행 다니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지플란트(EZplant) 이태경 동문(83회)

“치과 임플란트 수술의 새 경지를 개척 중”



제2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계성83회 박지만 교수

출원특허 80여 개(PCT 제외 60여 개)에 등록특허 21개를 가지고 있는 이지플란트. 일반인에게는 낯선 분야이지만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름을 얻은 첨단회사이다. 새파랗게 젊은 청년 이태경 동문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 동문이 이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은 치과대학 4학년 보철학 강의에서, 기존의 시술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이를 개선할 방법(아이디어)을 떠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근관치료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님께서 근관치료기구인 파일을 개발한 미국의 교수가 기술이전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사례를 말하였고, 이 동문은 거기에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고교 시절 희망진로 또는 학과가 수학과, 기계공학과, 건축학과였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개발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학적, 기계공학적, 감성적 성찰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스위스 Straumann社에서 기술교류 후 기념촬영

Q. 이제 성공가도로 접어들었는데, 고충이 있다면?

A.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고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경험을 짧게 말씀 드린다면, 2008년 경남에 위치한 치과로 첫 납품을 갔을 때, 일방적 불신에 의해 먼 거리까지 직접 들고 간 제품이 사용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되돌아오는 길에, 정신없이 울다가 이정표를 보니 대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0년에는 총 5개월 이상을 차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사먹을 돈이 없어, 빵을 사기 위해 차안을 뒤져서 찾은 동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생은 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날들이 집중하고 꿈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 고난이 내일에도 고난이지는 않듯이 모든 것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시간과 순리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갈 것과 새롭게 할 것 잘 가려
200년 역사의 영광을!”**

Q.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지만 들어보니 코끝이 찡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보람은?

A. 개발한 아이টে를 구입하신 분들께서 치과임플란트 수술계획을 편하게 진행하시고, 또 계획한대로 환자들에게 시술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젊은 시절을 바쳐 개발한 아이টে이 세상에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보람입니다. 10배, 100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깨달음도 보람입니다. 발을 갈고 씨를 뿌려 때와 하늘의 뜻을 기다려 수확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한 논문이 장관상을 수상했을 때에도 많이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지만 교수(계성 83회)와 함께 진행한 논문이라 더욱 뜻이 깊었습니다. 성공해서 학교에 약속했던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보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예전과 다른 안목으로 고민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105주년 역사를 가진 모교에 대한 바람을 밝힌다면?

A. 사업을 하면서, 1년을 버티는 기업이 적고, 그 가운데에 3년을 버티는 기업이 적고, 또 그 가운데에 10년을 버티는 기업이 더 더욱 적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켜내고 버티는 이러한 수동적 표현조차도 힘든 것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성의 105년 역사와 전통은 텅 빈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계성을 지나쳐간 모든 이들의 노력과 정신으로 속이 꽉 찬 역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계성의 이름이 지난 역사의 영광을 부흥시키며, 자긍심으로 기쁘게 함성 지르는 200주년 기념식을 후배님들께서 맞이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의 시간 속에서 빛났던 계성의 가치가 무엇이었으며,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새롭게 하고, 또 지키고,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성인의 서재

예 영 수 (39회) 동문 '이단' 저서 3종 출간



예영수 동문이 '이단' 관련 저서 3권을 펴냈다. <이단 정죄와 역사의 아이러니>, <이단 사냥꾼(감별사)의 속성>, <최삼경 목사의 성서적 신학적 이단성>가 바로 그 책들.

예 동문은 효성여대 교수,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원장, 경북대 교수, 한국외대 사범대학장, 한신대 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영문학자(미국 Oregon 대학원 Ph.D. 영문학)인데 다시 신학을 공부하여(미국 Pacific International University 대학원 Th.D. 신학) 이 같은 역저들을 저술하기에 이르렀다.

<이단 정죄와 역사의 아이러니>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전제: 역사의 역설적인 역전의 아이러니, 제2부- 정통 교리와 역사의 아이러니, 제3부- 죽은 정통과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 제4부- 대각성운동과 성령의 물결: 찬반 논쟁, 결론- 이단 정죄로 인한 역사의 아이러니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박 창 달 (51) 동문 <자유를 말하다> 출간



3선 국회의원(15-17대)이자 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인 박창달 동문이 <보수 시민운동의 리더 박창달, 자유를 말하다>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책의 표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위기의 한국정치,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려낼 혁신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박동문은 다가오는 총선에 입후보하지는 않지만 나라와 지역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저서로 표현해낸 셈이다.

'제1부- 자유의 중심에 서다, 제2부- 세계로 세계로, 제3부- 도약의 2010년, 제4부- 앞산을 향하여'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저물어가는 신묘년 저녁어둠이 깔린 사무실 창밖 남산 자락을 내다보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싶어 '자유총연맹 회장으로서 내가 걸어온 길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다'는 저자의 생각과 소회가 잘 드러나 있다.

공 영 해 (54회) 동문 삼형제 공동문집 <방앗간집 아이들> 발간

54회 공영해 동문이 두 형제와 함께 <방앗간집 아이들>이라는 공동문집을 발간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래는 <방앗간집 아이들>이 소개된 오마이뉴스 2011년 12월 13일자 보도 기사를 일부 간추린 것이다.



10년 전, 방앗간집 삼형제의 만형이 칠순을 맞았다. 삼형제는 기념으로 공동문집 <방앗간집 아이들>을 출간하였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삼형제가, 글의 갈래는 시, 시조, 수필로 각각 달랐지만, 모두들 문인들이었던 덕분.

다시 10년이 흘러 삼형제는 두 번째 공동문집을 발간했다. 책의 제목은 10년 전과 같은 <방앗간집 아이들>. 차이는 두 번째로 펴낸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새 책에 ‘제 2집’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는 것. 10년 세월이 흐른 뒤에 펴낸 이번 2집에도 형제들은 자기 분야의 작품을 실었다. 만형인 공진영 수필가는 수필을, 둘째인 공영해 시조시인은 시조를, 막내인 공영구 시인은 시를 게재한 것이다. 작품 수는 모두 94편. 특이한 점은 이번 2집에는 막내 공영구 시인의 아내인 백금태 수필가의 수필들

도 ‘찬조 작품’으로 실렸다는 사실이다.

삼형제는 방앗간집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은 이들 삼형제를 일러 ‘방앗간집 아이들’이라 불렀다. 세월이 흘러 그것은 책의 제목이 되었다. 게다가 표지 제자와 그림은 ‘방앗간집 두 딸’인 공홍규씨와 공한예씨가 맡았다. 이만 하면 남들이 한결 같이 부러워할 만한 예술 가족인 셈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1집을 낸 이후 만이었던 누나 공홍규씨가 타계한 사실이었고, 그 탓에 장남인 공진영씨의 팔순을 앞두고 발간한 이번 2집을 누나가 볼 수 없다는 점이였다.

그래도 삼형제는 열정이 식기 전에 다시 두 번째 문집을 발간하기로 마음을 모으게 되었고, 비록 글의 갈래는 다를지라도 담고 있는 내용만은 토속적인 인간애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존재의 근원을 궁구함에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문집에 밝히기로 했다. 형제들은 서문을 통해 ‘시간의 과정에 순응하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문학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세상의 가치를 빛어내기 위해 우리 삼형제는 한 눈 팔지 않고 기꺼이 문학의 길을 의롭게 동행할 것’을 천명했다.

삼형제는 모두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다들 퇴임하였다. 그 중 만이인 수필가 공진영씨는 현재 대구향교 교무처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시조시인인 둘째 공영해씨는 창원문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시인인 막내 공영구씨는 대구문인협회 회장으로 대구 문단 일에 성심껏 애쓰고 있다. 그의 부인인 수필가 백금태씨는 경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공영해 시인의 시조 ‘뉘라 알리- 시인12’를 읽어본다. (중략) 우리나라의 모든 다른 집들도 이들 형제들처럼 공동문집을 내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구문인협회 직전회장인 구석본 시인은 발문을 통해 ‘방앗간집 아이들의 깊은 우애와 그 우애의 푸른 잎과 향기로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의 자양분이 문학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러웠다. 가족 해

체의 시대, 이 세 분 형제들의 삶은 그 자체가 시, 시조, 수필이라 할 수 있겠다’면서 <방앗간집 아이들>과 같은 공동문집의 발간은 점차 흐려지고 있는 전통적 우애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덕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석 준 (56회) 동문 자서전 성격의 <춘놈의 도전> 출간



‘나는 날마다 패자부활전을 치르는 사람이다. 그, 래, 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머리말부터 호기심을 끄는 이 책을 쓴 저자는 UCLA박사, 대학교수, 국회의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김석준 동문이다. ‘패자부활전’, ‘춘놈’ 등의 표현이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력이지만, 책을 읽어보면 선입견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재미있는’ 책이다.

3선 개헌반대운동, 노동현장, 고문과 구타 등 젊은 날의 이력이다. 그러나 이 이력은 미국UCLA 정치학과대학원 학생회장까지 지낸 그를 모교의 조교도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한창 유신 체제가 기세등등하던 엄혹한 시대 탓. 독립운동가였던 이영식 대구대 설립자가 교수로 임용해주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17대 국회 최우수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받은 김 동문.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하지만 공천 탈락! 책 이름에 ‘춘놈’의 ‘도전’이 붙고, 서문에 ‘패자부활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까닭을 짐작할 수 있는 이력이다.

이 재 윤 (56회) 동문 <자유 동화> <IMPLANT 이야기> 출간



덕영치과병원장이자 언어학박사,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전국APT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회장, 자연보호 대구광역시협의회 회장, 낙동강 생명 의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대한바독협회 수석부회장, 음식쓰레기 안남기기운동회 대표, 대구환경미술협회 고문, 서재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인 이재윤 동문, 3권의 시집과 20권의 수필집 등 저서를 펴낸 시인이자 수필가, 저술가이기도 하다. 그가 이번에 두 권의 저서를 펴냈다. 짧은 글에 그림을 곁들인 <자유 동화>와 ‘칼럼집’이라는 부제가 붙은 <IMPLANT 이야기>, <IMPLANT 이야기>는 ‘제1부- Implant 이야기, 제2부 - 인술과 직업관, 제3부 - 치료 소고, 제4부- 영혼의 치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동화>에 실려 있는 글 한 편을 읽어 보자. ‘어릴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할머니로부터 / 동화를 듣지 못했다면 / 이 세상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만 / 생각했을 것이다.’ 제목이 ‘신뢰’인 글의 전문이다. 짧은 글이 감동을 준다.

김 원 용 (64회 / 세미텍 대표이사) 동문 저서 출판



김원용 동문이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라’는 도서를 출판하고 지난 11월 15일(화)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많은 동문 및 지인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계성문학 27호 발간- 별책부록으로 〈성구의 시〉도 창간

1980년 창간되어 전국 어느 학교에서도 발행해내지 못하는 전통을 쌓아가고 있는 〈계성문학〉이 올해로 27호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이번 호에는 특별히 모교 재학시절 ‘근일점문학동인회’ 활동을 했던 졸업생들의 현재작을 실은 〈성구의 시〉도 별책부록으로 창간하였다.

‘푸른 언덕의 계성문학’이라는 권두언을 통해 이수남 회장은 앞으로도 ‘동문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문단은 물론 한국문단에서 주목받는 그런 수준 높은 회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늘 후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선후배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호에는 박화식(51회, 수필가), 김창수(69회, 수필가), 강시현(71회, 시

인) 동문이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을 계성문학의 ‘신입회원’으로 소개하였다.

권두기획으로는 KAIST 경영대학원 초빙교수인 김정동(42회) 동문과의 대담을 실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인 김정동 동문’이 제목으로, 홍역선 대구수필가협회 회장(63회)이 인터뷰와 글 쓰는 일을 맡았다.

특집1 ‘청라 언덕의 유래와 雅名’은 전재규 대신대학교 총장(43회)이 집필했고, 특집2 ‘김진태 선생을 말한다’는 대표작 ‘침묵의 향기’ 외 2편을 게재하는 한편 김시현 수필가와 이수남 동문(50회)의 작가평 및 작품평을 실었다. 특집2의 바로 뒤는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을 역임한 동국대 명예교수 동창회 동문(43회)의 ‘나의 문학적 회고’와 ‘도창회의 수필세계(덕성여대 교수)’가 차지했다.

기획1은 권국명 시인(47회)의 ‘산거일기초’, 기획2는 박학배 화백(50회)의 ‘1960년대 서울 풍경’, 기획3은 이우상 소설가(61회)의 ‘정글에 그린 만다라’를 실었다. 그리고 장기홍(39회) 동문과 김익환(56회) 동문이 각각 쓴 외국 여행기 ‘낙양 관림 탐방기’와 ‘영국 보스턴으로 가는 길’을 실어 독자들의 열독율을 높였고, 이원우 수필가(54회)의 ‘동화사 이야기’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또 강구정(63회) 노태맹(68회) 두 의사동문의 ‘삶 그리고 죽음’을 다룬 ‘예정인가 운명인가’와 ‘백일홍꽃을 머리에 이고 죽음을 듣다’는 격조 높은 글로 주목을 끌었다.

한편 김태준(48회) 동문이 발표한 ‘구복산의 노을’은 ‘사소설’이라는 희귀한 갈래를 들고나와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 외 회원들의 작품도 시, 소설, 수필, 서평, 동화 등 다양하게 게재되었고, 김연대 서경희 남주희 제씨의 초대작품도 실었다. 61회 동문인 임영균 지상 사진전도 책 앞머리에 열었다.



신 형 호 교사 수필집 〈별을 업은 男子〉 출간



계성중학교 국어과 신형호 교사가 수필집 〈별을 업은 男子〉를 펴냈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신교사의 이번 책은 ‘제1부- 숲길에 빠지다, 제2부- 겨울 나그네, 제3부- 교단일기, 제4부- 어떤 만남, 제5부- 눈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자신의 글을 ‘살며 생각하며 보듬은 내 그리움의 맑은 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책으로 엮으려고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 부끄러워 낮이 화끈거린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만둘까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내기로 했다’고 말한다. ‘오늘까지 살아온 내 진솔한 삶의 빛과 그늘이니 숨긴다고 무슨 소용이랴’ 싶기 때문이다.



제36회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 농구대회 우승
“계성고, 고교농구 정상에 우뚝 서다!”

모교 농구부가 5월 5일부터 14일까지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 남녀중고 농구대회에서 서울 경복고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답게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지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모교가 1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1쿼터 시작하면서 연속 두 골을 허용한 계성은 즉시 반격, 중반 경복고의 잦은 실책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여 10점 차로 앞서면서 팽팽한 승부가 깨지는가 했지만, 경복고도 청소년 국가대표인 이종현을 앞세워 곧바로 추격을 시도한 끝에 다시 시소게임이 이어졌다. 전반을 38-38로 마친 양 팀은, 3쿼터 55-56의 점수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이어갔다.

4쿼터 들어서면서 경복고의 외곽포가 터지고 계성고의 리바운드를 몇 개 놓치면서 경복고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지는가 했지만, 계성 역시 저력을 과시하며 두 팀의 경기는 한 골차 싸움으로 계속됐다. 시종일관 폴코트디펜스로 일관한 계성은 종료 3분 전의 승부처에서 연속 스틸에 이은 속공을 추가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경복고 역시 이종현이 연속 8점을 쏴며 담으며 한 골에서 반 골의 긴장을 지속했으나 결국 종료 직전에 승부가 갈렸다.

종료 22초전 80-79로 뒤져 있던 계성고는, 맹상훈이 상대의 파울로 얻은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1점차로 앞섰다. 이어진 경복고의 공격에서 이종현이 공격자파울을 범하면서 넘어가 경기는 81:80으로 끝이 났다.

1점차 아슬아슬한 승리

농구 전문가들은 객관적 전력에서 경복고가 다소 우세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신력과 끈기, 전략에서 우세를 보인 계성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경복 응원단과 계성 응원단도 치열한 응원전을 벌였는데, 교사, 학생, 학부모, 동문들로 이루어진 계성 응원단의 열띤 응원에 선수들이 많은 힘을 얻어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다.

이날 행해진 시상식에서는 김종훈 감독과 김종완 코치가 지도상을 받았고, 청소년 국가대표로 맹활약을 벌인 최창진 군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계성 농구부의 우승은 9년 전 전국 추계 농구대회 이후 얻은 승리여서 학교 측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5월 16일, 계성고 대강당에서 내외 귀빈들을 초청하여 전교생과 전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교적인 축하 행사를 거행하였다.





학교행사(2011년 2학기)

■ 2학기 학생 간부수련회

- 일 시 : 2011년 8월 27일~28일 (1박 2일)
- 장 소 : 해인사 관광호텔
- 참가자 : 학생회 임원 및 1,2학년 대의원
- 주 제 : 기본생활습관 확립

■ 학생 기본생활 습관가지기 캠페인



- 일 시 : 2011년 9월 8일~21일
- 주 제 : 학생 기본생활 습관가지기
- 캠페인 활동 : 욕설 안하기, 질서 지키기, 건전한 이성교제 등 학생회 주도의 자율적 활동 전개

■ 계성농구 2011 전국대회 3관왕 축하 행사



- 일 시 : 2011년 10월 13일
- 장 소 : 본교 강당
- 2011년 전적

제36회 협회장기중고농구대회 우승
제6회 고려대총장배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 우승
제92회 전국체전 농구남자고등부 금메달

■ 명사 초청 강연

1) 2군 부사령관 오정석 중장

- 일시 : 2011년 10월 19일, 6교시
- 참석 : 1, 2학년 학생 전원
- 주제 : 누가 우리를 지킬 것인가?(Freedom is not free)



2) 충북대학교 백기엽 교수(56회)

- 일시 : 2011년 11월5일, 2~3교시
- 참석 : 1, 2학년 학생 전원
- 주제 : 지식 창조와 부자 되기



■ 제200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시상식



- 일 시 : 2011년 10월 25일
- 장 소 : 본교 강당

- 주 최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 참석자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김신 회장, 이상운 부회장, 백범학술원 한시준 원장, 대구지방보훈청 한기엽 청장, 백범김구기념관 김호열 운영위원, 학교법인 계성학원 김태동 이사장

■ “(사)나눔과 기쁨” 계성고 봉사단 출범식



- 일 시 : 2011년 10월 31일
- 장 소 : 본교 강당
- 참가자 : 1, 2학년 전체
- 내 용 : 계성봉사단 130명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봉사 활동 단체 출범

■ 1학년 대학탐방

- 일시 : 2011년 11월 21일~22일(1박 2일)
- 장소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 3학년 단체활동



- 일 시 : 2011년 11월 28일~30일(2박 3일)
- 장 소 : 에버랜드·휘닉스 스키장
- 참가자 : 3학년 전체
- 내 용 :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 공동체 의식 및 자 주도적 학습의 함양



각종 경시 대회 수상 실적

■ Science Challenge 2011(우수상)



- 일 시 : 2011년 10월 19일
- 주 최 : 한화, 한국과학창의재단
- 수상내용 : 장학금 1,000만원, 학교 지원금 500만원, 지도교 사상(교사 이용석), 동계휴가 중 미국 연수 10박 11일(지도교 사 동행)
- 수 상 자 : 2학년 성지현

■ 제8회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금상)

- 일 시 : 2011년 10월 31일
-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 수상내용 : 전국 845개 팀 출전, 부상 카메라 및 미국 연수, 우수교사상(교사 이용석)
- 수 상 자 : 2학년 성지현, 1학년 장원표

■ 2011 민주평통 청소년 통일영상제(최우수상)

- 일 시 : 2011년 11월 30일
- 주 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
- 수상내용 : 카툰·애니메이션 부분 최우수상 - 장학금 100만원, 중국 연수 5박 6일
- 수 상 자 : 1학년 조다혜, 김나현, 김민희

■ 2011년도 장학기금 납부내역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장기일	26	100,000	곽 태	50	30,000	한창조	55	100,000	이진환	64	100,000
김태선	41	80,000	최홍준	50	100,000	이 겔	56	2,500,000	주종걸	64	100,000
박영대	42	100,000	김신웅	52	1,000,000	서영섭	58	1,000,000	김준호	71	500,000
김선희	43	100,000	이종희	52	100,000	김원호	59	300,000	장성필	73	300,000
유길영	44	100,000	임현석	52	300,000	유승왕	59	1,000,000	남동우	77	1,000,000
이광현	44	500,000	허성욱	52	100,000	임병헌	60	100,000	남재율	77	200,000
이덕옥	46	100,000	강성득	53	50,000	배홍규	61	100,000	이진원	77	100,000
박 실	48	100,000	서개승	53	100,000	이창재	61	100,000	박우진	80	50,000
우흥기	48	50,000	정운식	53	100,000	곽우섭	62	300,000			
최병부	49	100,000	권동욱	54	1,000,000	신용식	64	200,000			
									합 계		12,260,000

■ 2011년도 회보구독료 납부내역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장기일	26	100,000	이기수	40	10,000	김정득	44	30,000	박동섭	47	50,000
오상건	31	10,000	이영목	40	30,000	서대교	44	50,000	이중우	47	10,000
이주국	31	10,000	김정욱	41	20,000	신용욱	44	20,000	이형조	47	30,000
김수영	32	30,000	김태선	41	20,000	김용구	45	10,000	전규용	47	20,000
서정훈	35	20,000	김세만	42	10,000	남태현	45	20,000	권석형	48	20,000
김경창	36	10,000	김창환	42	300,000	이정윤	45	10,000	김문현	48	100,000
김홍웅	37	30,000	박영대	42	20,000	정철수	45	20,000	김상수	48	5,000
박기진	37	100,000	박용희	42	30,000	조석제	45	20,000	김순일	48	10,000
강병양	38	20,000	백영수	42	10,000	구본탁	46	20,000	박 실	48	10,000
김상규	38	10,000	이무호	42	100,000	권택영	46	20,000	우흥기	48	20,000
김규형	39	20,000	임재규	42	10,000	도재진	46	20,000	이종하	48	10,000
김수관	39	20,000	정문택	42	30,000	박의조	46	10,000	49부생동기회	49	120,000
김연국	39	20,000	김현호	43	50,000	배 진	46	10,000	강민구	49	20,000
김정용	39	20,000	정문원	43	100,000	이성환	46	30,000	김광남	49	30,000
김도년	40	20,000	김병철	44	100,000	이일건	46	10,000	김종길	49	10,000
박종렬	40	20,000	김재양	44	20,000	문영웅	47	10,000	설춘수	49	20,000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신태웅	49	20,000	강성득	53	10,000	송종수	57	30,000	정영진	62	20,000
이성화	49	50,000	김유석	53	10,000	이상배	57	20,000	한종원	62	20,000
이세장	49	20,000	김형일	53	20,000	이성하	57	30,000	김종희	63	10,000
한무수	49	50,000	박도읍	53	10,000	진두현	57	20,000	정한관	63	30,000
곽 태	50	20,000	박병기	53	10,000	김영광	58	30,000	최재경	63	10,000
김승보	50	20,000	오태호	53	20,000	김재경	58	20,000	전형배	64	10,000
김주현	50	100,000	이정진	53	20,000	손정태	58	20,000	정봉남	64	20,000
도문호	50	30,000	정운식	53	20,000	엄재길	58	20,000	주종길	64	20,000
박연탁	50	100,000	하태철	53	10,000	권혁선	59	30,000	최주환	64	10,000
유영환	50	20,000	김종윤	54	30,000	김원호	59	20,000	김경일	65	10,000
은종우	50	20,000	김희승	54	20,000	천인수	59	20,000	김병윤	65	20,000
이재광	50	10,000	도영호	54	20,000	최민수	59	20,000	김희태	65	10,000
최용진	50	300,000	박동권	54	20,000	최홍식	59	10,000	홍종욱	65	20,000
추종이	50	100,000	서보정	54	10,000	권혁중	60	20,000	권동혁	66	20,000
김대원	51	100,000	서재권	54	10,000	김한수	60	20,000	우명진	66	20,000
김종규	51	10,000	이상한	54	20,000	김효종	60	10,000	김창수	69	10,000
노태교	51	20,000	이응재	54	20,000	도경섭	60	20,000	서정호	69	10,000
손병기	51	20,000	홍종길	54	10,000	배영수	60	20,000	이인수	69	20,000
이동각	51	30,000	김항윤	55	10,000	서준영	60	100,000	조영석	69	20,000
이원희	51	10,000	노인균	55	20,000	이창욱	60	20,000	박준모	75	30,000
정광호	51	20,000	박동길	55	20,000	임경국	60	50,000	박우진	80	30,000
최윤호	51	20,000	이상수	55	20,000	임문섭	60	20,000	권혁태	82	20,000
최정수	51	20,000	전수영	55	10,000	임병헌	60	10,000	이상열	?	100,000
김수호	52	20,000	정명수	55	30,000	장상헌	60	30,000	김광수	?	20,000
김신웅	52	50,000	최재탁	55	10,000	정명웅	60	30,000	예천지부		200,000
김정웅	52	20,000	한창조	55	10,000	김영웅	61	20,000	무 명		30,000
김종학	52	40,000	황주식	55	50,000	배홍규	61	20,000	무 명		20,000
송종영	52	20,000	김대진	56	10,000	송자도	61	20,000	무 명		20,000
이상규	52	20,000	김정길	56	20,000	이근재	61	10,000	무 명		20,000
이수환	52	10,000	백상호	56	10,000	이승엽	61	20,000	무 명		10,000
이헌중	52	20,000	이 걸	56	20,000	최봉환	61	20,000			
정수열	52	10,000	김규중	57	100,000	김지택	62	20,000			
허성욱	52	10,000	김종식	57	50,000	배영웅	62	20,000			
									합 계		5,725,000

총동창회보 『啓聖同窓會報』

발간은 동문님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계성총동창회보가 동문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계성총동창회보는 총동창회의 활동소식 이외에도 각 기별, 지역, 직능, 해외 동문회 소식을 동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문 개개인의 동문동정(승진, 이동, 개업, 경조사 등), 그리운 모교소식,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동문들의 생생정보를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동문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모교와 총동창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성총동창회보는 2012년에도 계성인들의 편안한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성총동창회보의 발간은 동문님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동문님들의 소식을 총동창회나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회보에 게재되어 동문들 간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 발 멀리서 지켜보던 동문들도 각 기수별, 동호회별 활동을 보며 ‘나도 한 번 참석해볼까?’ 하는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식이어도 좋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소식이어도 좋습니다.

계성총동창회보는 여러분의 소식으로 채워가는 공간입니다.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 각종 기별/ 지역 / 직능 / 동호회 소식

□ 동문동정(승진, 이동, 개업, 경조사 등)

□ 자유기고 및 전문가 기고

□ 추억의 사진 및 기타 게재를 원하는 내용

※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기고와 칼럼을 게재해 주실 동문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회/보/자/료/접/수/처 ■

계성총동창회 사무국: 대구 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TEL: 053)255-3900 FAX: 053)256-4942 E-mail: keisung@keisung.or.kr
홈페이지: 계성학교총동창회 www.keisung.or.kr



-전문 공인회계사-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권 오 주 (43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126-1 일흥B/D 8F
TEL : (02)6321-1100 FAX : (02)2277-9415
C-P : 010-8782-1554



-일반 가스-

화성가스(주)

대표이사 김 우 홍 (45회, 총동창회 고문)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1120-1
TEL : (053)565-0221~3 C-P : 011-9591-2283



대왕극장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 표 이 해 동 (46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55-1
TEL : (054)772-3600 C-P : 011-509-0015

건.직.물

신라섬유(주)

대표이사 김 경 진 (47회)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291-2
TEL : (053)962-8866 FAX : (053)962-5111
C-P : 011-9594-4105



화학약품제조 및 유통

융진산업(주)

대표이사 마 준 호 (47회, 총동창회 고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44-26
TEL : (02)783-0324~6 FAX : (02)785-4487
C-P : 010-5413-2356 E-mail : jumhoma@korea.com



자동차부품제조

광림정밀

대 표 임 재 군 (47회)
경기도 광주시 장지3동584-1
TEL : (031)764-2507 FAX : (031)764-2507
C-P : 016-9282-5587
E-mail : gwanglim@empal.com

신라약국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모시겠습니다.

대표 김 광 기 (48회)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789-5

TEL : (053)311-6767 C-P : 011-509-8485



컴/퓨/터/통/신/ (주)코밴

대표이사 김 상 준 (48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946-16 야구회관 4F

TEL : (02)3462-9998 C-P : 010-8701-0550

E-mail : sjkim@kovan.co.kr



의/약/품/도/매/업/

(주)경동사

대표이사 이 교 삼 (48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0동1647-3

TEL : (053)752-1112 FAX : (053)217-3145

C-P : 010-3508-7599



설계,감리

(주)우진

회장 신 태 용 (49회)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192-20

TEL : (055)762-7999

C-P : 010-3551-5971

E-mail : shintyong@hanmail.net



(전)봉성우체국 (전)별정우체국중앙회

국장/수석부회장 박 지 원 (50회)

FAX : (054)673-7245

C-P : 010-8584-9900

E-mail : jupiter3939@hanmail.net



대한민국을 하나로, 세계 속의 한국우정

감동의 우편서비스
모두가 행복한 생활금융

금오공인중개사

“희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표 김 성 식 (51회)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1동304-4(1F)

TEL : (054)452-9931 C-P : 011-539-2104



전기전자부품제조업체

· 대영하이테크(주) · 대영실리콘(주)

회장 김 재 길 (5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성서공단내 2차2단지 60B-8L
TEL : (053)582-7495/(053)582-6739 FAX : (053)582-7550
E-mail : dy7550@unitel.co.kr



자/동/차/매/매/

진영자동차

대표이사 백 학 조 (5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749
TEL : (053)585-8505 FAX : (053)588-5619
C-P : 011-504-2699



세상보다 높이 올라 선진금융으로 도약합니다

연예나 연예인과 인연한 금융서비스로 고객들의 행복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200억, 선진금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구미새마을금고

“희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사장 성 기 조 (51회)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2동122-17
TEL : (054)452-4337 FAX : (054)455-3031
C-P : 010-3545-3699



케이엠레미콘(주) 경북레미콘조합

대표이사/이사장 오 주 권 (51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71-9
TEL : (054)291-3333 FAX : (054)292-0900
C-P : 010-5599-3322

계원예술고등학교

계원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아름답고 즐거운 배움터입니다.

교 장 김 명 규 (52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07
TEL : (031)710-8550 C-P : 010-8981-6746



경상북도의회

항상 열린마음으로
도민여러분과 함께하는 경북도의회입니다.

의 원 김 원 석 (52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TEL : (053)602-5167 C-P : 017-432-8504
E-mail : imkws@hanmail.net



서/비/스/업/

(유)칠성시장

대표이사 김 주 휘 (52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276

TEL : (053)424-2089 C-P : 017-539-0124

E-mail : jue117@naver.com

무역업

중원E&I

대 표 문 중 현 (52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32-2 남강B/D 1706호

TEL : (02)754-7477 FAX : (02)754-7476

C-P : 011-9746-2411

자동차시트제조

(주)성진CS

대표이사 장 희 성 (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451-1

TEL : (02)2681-5425 FAX : (02)2681-6650

C-P : 017-265-8750

E-mail : sgcs55000@lycos.co.kr

텐/트/수/출/

배진산업(주)

대표이사 주 동 수 (5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906-4

TEL : (032)583-8557 FAX : (032)542-2199

C-P : 011-288-8335

장의/결혼

(주)패밀리상조 (주)상조관광

대표이사 황 인 호 (52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164-2

TEL : 1577-3125 FAX : (053)956-3149

C-P : 011-509-7645

고려관세사무소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는 기본이며
더 나은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세사 박 정 호 (53회, 총동창회 부회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13-1 영남일보 별관 2F

TEL : (053)293-1000 FAX : (053)751-5522

C-P : 010-3558-1176



오성고등학교

여러분의 웅대한 꿈의 출발점에
오성고등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교 장 오 현 수 (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1070

TEL : (053)755-2474 C-P : 010-3535-1758

E-mail : ohyun1225@hanmail.net

(주)갯바위문화관광개발

“희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표이사 이 응 재 (54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347-18

TEL : (053)756-6886 C-P : 011-504-0466

E-mail : lee0466@hanmail.net



광개토개발

대 표 김 진 권 (55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1038-3 광개토개발

TEL : (053)355-4215 C-P : 010-2541-4215

E-mail : mgnyang@hanmail.net



아이서비스(주) 빌딩종합관리

항상 최선을 다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상무이사 김 태 원 (55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60-28 아이파크타워Ⅱ 6F

TEL : (053)761-8686 FAX : (02)566-5999

C-P : 010-3598-4497 E-mail : tk2300@i-service.co.kr



(주)피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후 석 (5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40-1 피아B/D 401호

TEL : (02)927-8286 FAX : (02)922-8041

C-P : 010-5281-8510 E-mail : hook@piaarch.co.kr



I/T/

(주)에스티월

회 장 서 정 규 (55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945-24

TEL : (02)563-2333 FAX : (02)568-6428

C-P : 010-5389-6195 E-mail : full-star@stwol.com



임대업

영남실업

대표 전 정 석 (55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126

TEL : (053)357-3727 FAX : (053)357-3727

C-P : 010-3508-8692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김 병 일 (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223 세양B/D

TEL : (02)3703-1369 FAX : (02)3703-1495

C-P : 010-5261-9688 E-mail : bikim@kimchang.com



(주)건영기건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 등록 제10-21-221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204-1

대표전화 : (031)948-8745

팩 스 : (031)948-8746

C . P : 019-476-4658

E-mail : gyenc@hanmail.net

- ▶ 시스템 채널 재진설계 및 견적 (코리스)
- ▶ 방진방음 설비설계, 진단 및 견적 (NSV)
- ▶ 고무발포 보온재 판매 (아마텍)
- ▶ 벤티플라 이멀트 판매 (정도)

(주) 건 영 기 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5

신안매트로칸 419호

전 화 : (02)3667-6666, (031)386-7724

팩 스 : (031)386-7742

웹하드 : gyenc / 1234

- ▶ 지하수조사 및 개발공사업
- ▶ 지질 및 지반조사 용역업
- ▶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업
- ▶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대표이사/기술사(건축기계설비) 나 채 문 (56회)

세광상역(주)

무 역

대표이사 신 춘 근 (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445-4 래미안서초유니빌 2307

TEL : (02)3446-5210 FAX : (02)3446-5218

C-P : 010-5222-5210 E-mail : ckshin53@lycos.co.kr



신뢰에 보답하는 기업!
최선을 다하는 기업!

[제조]

(주)해양사

대표이사 오 진 일 (56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79-1 마린센타 1F

TEL : (051)463-8750 FAX : (051)466-8750

C-P : 010-3563-3101 E-mail : jinil2001@hanmail.net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도우산업

대표 우 병 국 (56회, 동기회장)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718-1

TEL : (054)774-8822 FAX : (054)774-8861

C-P : 011-502-7580 E-mail : dowooja@hanmail.net



일신전자산업(주) 일신무역

대표이사/대표 윤 상 현 (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60 63B/D 40F
TEL : (02)783-1970 FAX : (02)784-1386
C-P : 011-229-2116 E-mail : is6342@kornet.net

무역및제조(전기전자용접연)



우리들리조트

대표/사장 최 건 (56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1206-2
TEL : (064)767-5000 FAX : (064)767-5114
C-P : 011-266-8038
E-mail : choikeon1101@naver.com



변화된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합니다
국내 최고의 유통기업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롯데쇼핑을 만들겠습니다.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본부 상무이사 김 일 환 (5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140 레몬프라자 6F
TEL : (02)2282-3939 C-P : 010-2270-0003
E-mail : fides33@hanmail.net

모사.섬유

낙양모사

대표 김 중 식 (57회)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금구리 366-4
TEL : (053)573-5523 FAX : (053)573-5524
C-P : 011-501-4436
E-mail : nakyang5522@yahoo.co.kr



한국폴리텍 I 대학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느낌
차별화된 대학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학장 나 장 백 (5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238
TEL : (02)2001-4100 C-P : 010-6421-6207
E-mail : 100nb@hanmir.com



평생교육
평생교육

반/도/체

에스앤에스텍(주)

대표이사 남 기 수 (5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9번지
TEL : (053)589-1601 C-P : 010-9016-0757
E-mail : ksnam@snsstech.co.kr





주원무역(주)

대표이사 신 기 룡 (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45-15
 TEL : (02)3775-2358 FAX : (02)3775-1819
 C-P : 010-5022-2358 E-mail : krshin@kornet.net



이윤상안과

www.icansee.co.kr

콘택트렌즈 전문 클리닉 · 드림렌즈 최초 시술병원

의학박사/원장 이 윤 상 (57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8-13 해광B/D 6F
 TEL : 02-555-3700 E-mail : dryslee@hitel.net




자/동/차/부/품/
(주)이래CS

부사장 김 용 주 (58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죽곡리 9-1
 TEL : (055)346-2000 C-P : 010-5052-4253
 www.ierae.com



안전보호구 및 기자재 제조/유통
(주)이노스시스템

대표이사 이 한 식 (5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332(중곡동)
 TEL : (02)498-1020 FAX : (02)498-1060
 쇼핑몰 : inosmall.com E-mail : inoss@paran.com

창원YMCA

YMCA회원참여는 사랑과 나눔의 시작입니다.

명예사무총장 전 점 석 (58회)

경상남도 창원시 도계동886-4
 TEL : (055)266-8680 FAX : (055)275-6766
 C-P : 010-3864-0833 E-mail : jjseuk@hanmail.net




밸브/제/조/
(주)금강밸브

대표이사 최 경 식 (5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209-10
 TEL : (053)581-4500 FAX : (053)581-4505
 C-P : 010-6860-7000 E-mail : ceo@kuka.co.kr

김무현세무사

친절하고 빠른서비스! 대표 김 무 현 (59회)

국세실무행정경험20년(상속·증여·양도 전문 상담)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3동 495-43
TEL : (053)622-3022 C-P : 010-4501-3022



김내과의원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모시겠습니다.

대표 김 형 락 (59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송우리 172
TEL : (031)543-4224 FAX : (031)543-4228
C-P : 011-354-4224 E-mail : kyy0719@hanmail.net



귀금속도소매업

권 주얼리

대표 이 보 한 (59회)

경상남도 마산시 신포동2가28 대우백화점 내
TEL : (055)240-5579 C-P : 010-3596-3848
E-mail : bolee3848@hanmail.net



금강부동산

편리하고 신속한 중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무 성 진 (60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654
TEL : (053)311-1166 C-P : 011-517-3388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구미상모대리점 대표 이 수 영 (60회)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344
TEL : (054)461-7752 C-P : 011-9598-4445



무/역/

크로네스코리아(주)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표이사 홍 의 락 (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222 서일B/D 6F
TEL : (02)2203-8920 FAX : (02)2203-0946
C-P : 011-223-3162 E-mail : iragh@hanmail.net





농협은행
농업·농민을 위한 금융기관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김 상 태** (61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이문리 162
TEL : (054)482-2282~3 C-P : 010-3508-5587

의류,제,조

까운세상

대 표 류 인 걸 (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1227-8
TEL : (053)765-5333 C-P : 010-6668-5333
E-mail : igrhu@hanmail.net

경북과학대학교

건강한 인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공장 대표 **이 종 희** (61회)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봉산리673-1
TEL : (054)972-9721 C-P : 010-5214-0086
E-mail : ljonghi@hanmail.net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 창 희** (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17
TEL : (02)2220-0388 C-P : 010-3750-2122
E-mail : chlee@hanyang.ac.kr

LCD장비제조

(주)리드

대표이사 **임 종 열** (61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내동203-2
TEL : (031)324-0201 FAX : (031)323-7004
C-P : 010- -4092 E-mail : jyrheem@leedi.com



특수내화물제조

한국뮤녹스(주)

대표이사 **정 태 연** (61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627
TEL : (054)278-0391 FAX : (054)278-2749
C-P : 011-230-7070 E-mail : tychung@munox.com



선박연료유통업체

파노코코리아(주)

대표이사 **금 태 연** (6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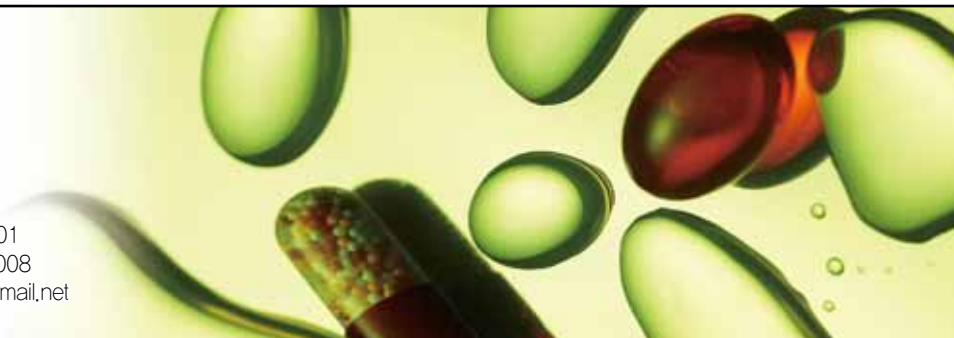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10 우리B/D 1306호
 TEL : (02)756-6421 FAX : (02)756-6879
 C-P : tykum@panoco.co.kr

의/약/품/도/매/업/

(주)팜코리아

대표이사 **김 성 수** (62회, 동기회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초록나라 106-201
 TEL : (053)522-0002 FAX : (053)522-0008
 C-P : 011-511-1292 E-mail : polgong@hanmail.net



·프렌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
·리앤아이피(주)

대표/대표이사 **이 윤 원** (62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성지하이츠2차B/D 411~413호
 TEL : (02)568-4598~9 FAX : (02)568-1770
 C-P : 010-9414-6286 E-mail : lyw5000@friendspat.com

국내외 특허, 상표, 소싱 및 출원, 회피 설계

단순한 높은 품질을 넘어
 고객님에게 이익을 창출해주는
 지식재산을 만들어 드립니다





기쁜교회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목사 **박 도 순** (63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761-1 (자유A3상가)
 TEL : (051)303-4996 C-P : 010-4561-0631
 E-mail : pds243113@hanmail.net

유경산업

대표 **신 윤** (63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555-9 유통상가 5-120
 TEL : (031)479-2260 FAX : (031)479-2262
 C-P : 010-6232-5803 E-mail : yk3200@hanmail.net



교무, 호스 (유통업)

최고의 회계솔루션

우리회계법인이 만들어갑니다.



우리회계법인

고객에게 실천 가능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이 윤 희** (63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996-16 육인B/D 2F
 TEL : (02)562-6677 FAX : (02)562-2225
 C-P : 016-226-4459 E-mail : yhleee@wooricpa.co.kr

(주)신명기술공사

상무이사 정 득 환 (63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진촌리1132-2 대우자동차서비스센터2F
TEL : (032)836-9007 FAX : (02)408-1926
C-P : 011-860-1156 E-mail : deuk9824@hanmail.net

입체Coperation(주)

대표이사 정 진 성 (6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306-88
TEL : (053)581-7385 FAX : (053)582-7747
C-P : 011-501-2640 E-mail : jsjung1209@hanmail.net

(주)동운인터내셔널 (주)동운아나텍

대표이사 김 동 철 (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467-8 아리랑타워 9F
TEL : (02)598-5240 FAX : (02)598-5055
C-P : 010-5213-2637 E-mail : dckim@dwanatech.com

반도체수출입/제조

법률서비스의 대중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법률서비스의 국제화,
국제화시대, 젊은 감각에 걸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이제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가 만들어 갑니다.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

대표 김 연 호 (6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우역센터B/D 41F-5호
TEL : (02)551-1256 FAX : (02)551-5570
C-P : 011-805-5570
E-mail : yhkimlaw@unitel.co.kr



한화건설

상 무 박 병 렬 (64회)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1 한화B/D 5F
TEL : (02)729-2800 C-P : 010-2657-8648
E-mail : h8211070@hanwha.co.kr

Global
Top player

꿈을짓는 열정, 세계를 향한 도전,
44 국내 건설사 컨소시엄을 넘어,
Global Top Player가 되었습니다.



에프투텔레콤(주)

전무이사 백 성 호 (6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23-2
TEL : (02)3408-9218 C-P : 010-3456-4939
E-mail : shbaik@f2telecom.com



(주)청산에 건설/조경

대표이사 우 만 곤 (6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34-21 동화B/D 3F
TEL : (02)3444-4312
FAX : (02)3444-4513
C-P : 010-8719-4054
E-mail : chungsanltd@naver.com



한신공영(주)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본부장 전 재 식 (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65-32
TEL : (02)3393-3302 FAX : (02)3393-3369
C-P : 010-5391-8437 E-mail : mjsik2001@hanmail.net



GENESIS PRADA



현대자동차(주)

계명대리점 대표 정 봉 남 (6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321-84
TEL : (053)583-1100 FAX : (053)583-2885
C-P : 011-502-2100 E-mail : ang-dre6464@nate.com



대남목재

대 표 정 철 수 (6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514
TEL : (053)632-2336 FAX : (053)634-2227
C-P : 011-822-2406 E-mail : cs0823@naver.com

목재/합판제조및 도매

방촌라이크외국어학원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원 장 구 영 길 (65회)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889-1
TEL : (053)984-6797 FAX : (053)984-6798
C-P : 010-2962-5851 E-mail : ykkoo22@hanmail.net



제/조/

(주)동산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관리이사 권 태 윤 (65회)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사리리 23-1
TEL : (054)336-9090 FAX : (054)336-9101
C-P : 010-4502-8166 E-mail : tyoon501@hanmail.net





경북수목원

대 표 박 광 영 (65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오리 67-1

TEL : (031)768-5335 FAX : (031)768-9797

C-P : 010-3299-3500 E-mail : kypark814@yahoo.co.kr

YMK텍스

“희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 표 양 승 목 (65회)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1030-5 평화B/D 420호

TEL : (053)523-5061 FAX : (053)523-5062

C-P : 010-5061-0664 E-mail : mok0664@hanmail.net



(주)신동아산업개발

중기업

대표이사 김 종 열 (6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927-5 월성B/D 4F

TEL : (053)634-9074 FAX : (053)634-9075

C-P : 011-820-2148

일반 농장 농원

청수농장

대 표 김 지 철 (66회)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어로1리 121

TEL : (054)972-1077 C-P : 019-543-1077

E-mail : sarae2000@hanmail.net

제/조/



(주)코리아유해파차단

대 표 허 등 영 (66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50-2 태양B/D 7F

TEL : (032)423-2778~9 FAX : (032)423-2779

C-P : 017-326-4280 E-mail : fortun7@hanmail.net

(주)TK종합건설

“희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시공부 현장소장 배 승 호 (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399-23 문암B/D 4F

TEL : (02)335-8188 C-P : 011-9009-2159

E-mail : bsh0815@naver.com



자동차정비기기 서광통상

대표 서 동 석 (67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31-1
TEL : (053)561-2261 FAX : (053)561-2263
C-P : 011-517-2313 E-mail : dss0060@hanmail.net



일반 관광



씨에프랑스여행사

대표 석 기 수 (67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117 나전B/D 606호
TEL : 1588-0074 FAX : (02)6008-0645
C-P : 017-280-3284 E-mail : cjesks@hanmail.net

Smart Intelligent ISUNG Engineering

여성엔지니어들은 로봇과 연계한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주)이성엔지니어링

우수한 두뇌와 세계수준의 기술로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성 현 모 (67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시화공단 2마 301-3
TEL : (031)433-0500 FAX : (031)362-8004
C-P : 010-6841-8755 E-mail : hmsung@isung.com

냉동창고/수산물가공

(주)우수

대표이사 김 종 석 (68회)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노동리 694-1
TEL : (054)771-4383 FAX : (054)772-4983
C-P : 011-9566-4383 E-mail : jskim050@yahoo.co.kr



전자.장비.제조

(주)뮤트로닉스

대표이사 박 승 모 (68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칠곡리 469-1
TEL : (031)692-7778 C-P : 010-8207-7700
E-mail : smpark@mutronics.co.kr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고 명 식 (69회)



도경유통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 표 우 경 성 (69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1203-7

TEL : (053)354-5548 FAX : (053)356-9979

C-P : 011-540-5548



(주)한국소방기구제작소

첫번째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신념으로
당신의 삶에 만전을 기해 드리겠습니다.

부사장 정 수 환 (69회, 동기회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283-3

TEL : (053)744-9994 FAX : (053)756-9518

C-P : 010-3809-0222 E-mail : cheong0222@naver.com



카톨릭신경외과

탄탄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원 장 정 훈 (69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215

TEL : (053)941-3119 FAX : (053)958-7114

C-P : 010-3802-3701 E-mail : woorinsc@naver.com



애드메이저

원샷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초고속시대
멀티플레이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 표 조 두 석 (69회)

대구광역시 동구 심천동317-8 유진B/D 602호

TEL : (053)761-6488 FAX : (053)744-0005

C-P : 010-6635-7140 E-mail : doldul22@naver.com



가산스틸(주)

대표이사 조 경 식 (70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27-16

TEL : (051)316-7815 FAX : (051)316-7818

C-P : 010-6221-7818

E-mail : kscho000@naver.com



철/강/유/통/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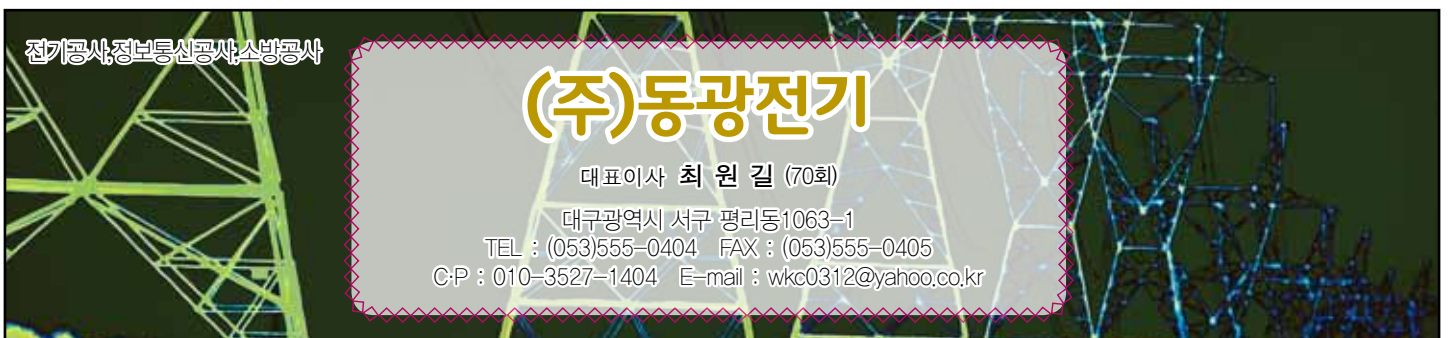
(주)동광전기

대표이사 최 원 길 (70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1063-1

TEL : (053)555-0404 FAX : (053)555-0405

C-P : 010-3527-1404 E-mail : wkc0312@yahoo.co.kr





인터넷 종합 쇼핑몰
(주)맥시몰
대표 류 상 열 (71회)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276
TEL : (053)523-2839
FAX : (053)523-2843
C.P : 010-2837-9271
E-mail : master@maximall.co.kr

건/설/업 (주)대한산업개발

대표이사 김 기 훈 (72회)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168
TEL : (054)971-2131 FAX : (053)571-0348
C-P : 011-820-3531 E-mail : kh-0831@hotmail.com



찰떡궁합

모든 재료는 엄선하여 최고의 품질만 사용하겠습니다.

대표 김 일 환 (73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신암그린타운상가내
TEL : (053)942-6677 C-P : 011-504-3525



김창수내과의원

원 장 김 창 수 (73회)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245-16
TEL : (053)555-8228 FAX : (053)555-8228
C-P : 010-9366-6093 E-mail : poly0115@naver.com



(주)원파트너스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표이사 류 수 환 (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6 삼웅B/D 4F
TEL : (02)876-6699 C-P : 010-9482-9100
E-mail : hwan8804@naver.com




법무법인 성실

변호사 박 계 덕 (7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83-4 광진B/D 503호
TEL : (02)854-0088 FAX : (02)854-0058
C-P : 010-7256-0088
E-mail : gjxsav@naver.com



"For your life dream"

힘들때 일수록 고객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www.lawdreaming.com



DYNAMIC Solutions in Total
뛰어난 안정성, 뛰어난 성능의 다양한 IT솔루션
문서유출방지/개인정보보안/인터넷디스크/백업시스템 구축 컨설팅전문
서버, 데스크탑 가상화 구축 컨설팅 전문
이스트소프트 인터넷디스크 대구/경북총판
Atempo TimeNavigator 대구/경북총판

(주)디에스티

대표이사 성 호 준 (73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767-1 우진B/D 4F
TEL : (053)311-6544 FAX : (053)321-6544
C-P : 010-4193-1338 E-mail : sos@dstinfo.co.kr

애드박스

대표 성 기 창 (74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1790-8 우리은행 2F
TEL : (053)653-8114 C-P : 010-2511-7004
E-mail : ncable@hanmail.net

광고



유성상사

대표 권 용 호 (76회)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석촌리 49
TEL : (054)836-9958 FAX : (054)836-9958
C-P : 011-513-9957 E-mail : yuseung9957@naver.com

잡화유통



(주)엑스파미디어

QBS와 함께 환상적인 입체음향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기술이사 박 호 준 (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우림블루나인 A-1907호
TEL : (02)8482-8141 FAX : (02)8482-8144
C-P : 010-5027-5426 E-mail : htpark@expamedia.com

QBS
a Truly amazing 3D sound
By EXPAMEDIA, INC.




메트로아이센터 안과의원

원 장 심 삼 도 (76회)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11-1 노보텔대구시티센터(6F)
TEL : (053)253-0037
FAX : (053)253-0133
E-mail : ssd306@hanmail.net



문중,개인납골함 도매

명혁

대 표 김 영 호 (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767-4
TEL : (053)745-9920 FAX : (053)745-9920
C-P : 011-826-9200

법률사무소 해명

변호사 이재민 (8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1704-1 정곡B/D 동관512호

TEL : (02)537-2885 FAX : (02)537-2865

C-P : 011-9139-7501 E-mail : jmlee@hm-law.co.kr



유아체육전문매니지먼트

(주)차일드스포츠

대표이사 류치형 (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567 지하1층

TEL : (053)794-1020 FAX : (053)792-6003

C-P : 011-545-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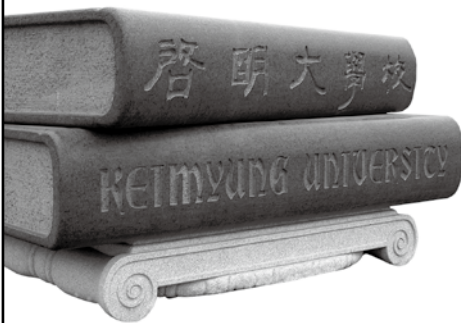
E-mail : my0733@hanmail.net



『啓聖同窓會報』 발간을 축하합니다!



계명 55년 100년을 앞섭니다!



55년간 수많은 교수님들이 지식의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55년간 수많은 학생들이 지식의 꿈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다가올 100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총장 신일회 (44회)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1000 TEL : (053)580-5000 FAX : (053)580-5005 C-P : 011-509-2561

수출입 화물의 국제간 운송(해상·항공)



(주)삼영익스프레스

Sam Young Express Co., Ltd.

[사명] 하나님께 영광, 고객의 번영,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행복
[핵심가치] 섬김, 열정, 화합, 정직, 창의

대표이사 정은구 (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20 삼영빌딩

TEL : (02)710-6700 FAX : (02)710-6789

www.samyoungeexp.com





Hyop Woon International Co., Ltd.

(주)협운해운 대표이사 마 상 곤
(47회, 총동창회 고문)

Your Choice & Your Satisfaction
Customer is our Priority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60 TEL : (02)3703-0703 FAX : (02)739-3159 C·P : 010-5397-6971



동보한방병원
건강한 생활의 동반자

한우리정형외과의원

원장/한의학 박사 장 세 환 (47회, 총동창회 고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2동 503-1

TEL : (053)425-4085 FAX : (053)424-0943

C·P : 011-502-0631 E-mail : db4254085@hanmail.net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고객님께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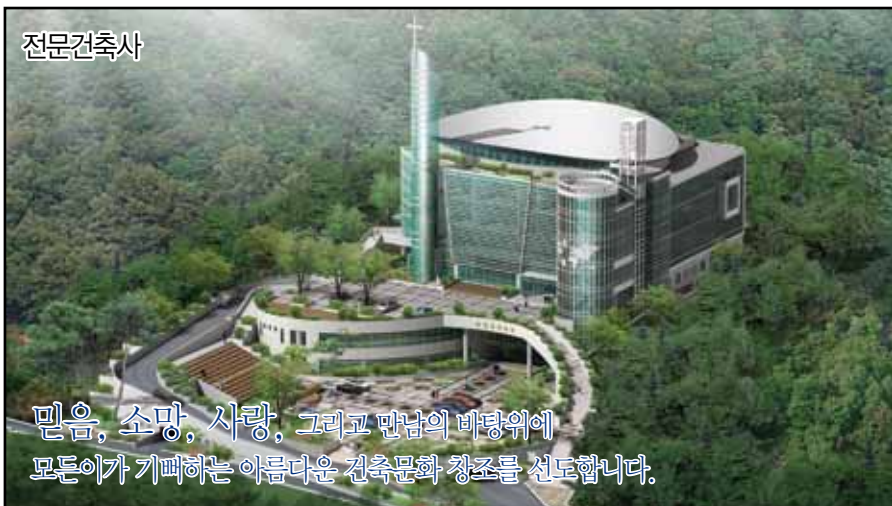
한미우호증진협의회한국본부
서 석 구 법 률 사 무 소

대표/변호사 서 석 구 (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33-2 범어B/D 205호

TEL : (053)752-0002 FAX : (053)743-7578 C·P : 010-7641-7813 E-mail : saveuskorea@naver.com

전문건축사



[주]세진예공건축
SEJIN ART SPACE DESIGN GROUP

대표이사 백 창 건 (5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642-3 진송B/D 3F

TEL : (02)588-3413 FAX : (02)582-5946

C·P : 011-229-2583 E-mail : cgbl100@hanmail.net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만남의 바탕위에
모든이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건축문화 창조를 선도합니다.

언제나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도록 저희 (주)서울월드투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관광

즐겁고 편안한 휴식이 있는 여행 (주)서울월드투어

대표이사 최 재 홍 (53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889-5 상제리제센터상가 124호

TEL : (02)508-4008 FAX : (02)6007-1123 C·P : 010-5211-3116 E-mail : vips@seoulworldtour.co.kr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 서 홍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허 정 (56회, 울산지부회장)

경상남도 진해시 원포동100 STX조선내 TEL : (055)548-7115 FAX : (055)746-3115 C·P : 011-9306-7878 E-mail : jhg@onestx.com

나라감정평가법인

성공비즈니스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나라감정평가법인입니다

대구경북지역본부 감정평가사

양 보 식 (57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198-34 TEL : (053)471-0900

C·P : 010-3892-5456 E-mail : penciams@hanmail.net

Business Item

Flat Panel Display Equipment Division
LCD Lapping & Polishing M/C
LCD Cleaning M/C
Glass Cutting M/C
Edge Grinding M/C
PDP Glass Processing Line

Semiconductor Equipment Division
Rotary Grinding M/C
Single Side Lapping & Polishing M/C (12"~96")
Double Side Lapping & Polishing M/C (9R~42B)

Special Purpose Machine Division
Slitting Roll Burnishing M/C
Pulley Forming M/C
Boring/Turning/Drilling/Broaching/Chamfering Line



대표이사 : 이 성 하 (57회)

Mobile : 010-3810-6134

E-Mail : cmt@cmtkorea.com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C/M/T 씨엠티(주) CMT.Co., Ltd.
http://www.cmtkorea.com

704-240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8-1

TEL : (053)592-2336 FAX : (053)292-2340



밝은 미래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는 - **(주)서흥인터내셔널**

가정용가구 인테리어소품 수입 및 국내유통

대표이사 **김 희 국** (5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2동 107-19 서흥B/D 5F
 TEL : (02)2246-2850 C·P : 010-9771-8855
 E-mail : kimhkuk@naver.com

KOMSA 대한해사검정공사 **(주)대한해사검정공사** 수출입화물선적전검사



FTA시대를 맞이하여 제1의 토종 한국 검정 회사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세계적으로도 존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물류 검정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장 지 수** (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52-1 메트로디오빌 1614호
 TEL : (02)754-8106 FAX : (02)754-8109
 C·P : 010-5320-8106 www.komsa.co.kr

NOVA (주)노바 NOVA Corporation **21세기를 앞서가는 (주)노바** www.novakorea.net



대표이사 **노 진 우** (59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333-7 금강펜테리움T타워 B-905 TEL : (031)730-0160
 FAX : (031)730-0164 C·P : 010-3246-2292 E-mail : generoh@novakorea.net

[건축설계감리] “최고의 기술력, 신뢰와 믿음 최선을 다하는 남양건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

대표이사 **이 택 봉** (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1-8(5F)
 TEL : (053)741-1544 FAX : (053)743-1549
 C·P : 011-502-6210 E-mail : coconoon@yahoo.co.kr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SPARK CELL로 축복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주다산교회

담임목사 권 순 응 (60회)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160 (동탄종교부지)

TEL : (031)8015-1091~3 C·P : 010-2215-1152 E-mail : joodasan@joodasan.com

단열제 시공·판매

(주)제일인슈로

대표이사 안 순 길(60회)

언제나 만족스러운 품질과 시공을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만족 100%에
도전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39-2 TEL : (053)255-5515 FAX : (053)256-5515 C·P : 011-501-5515 E-mail : ask5515@naver.com

대주회계법인

각종 세금 관련 문제와 절세에 관한 모든것을 해결해드립니다.

6사업부 공인회계사 서 은 식 (61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629 동하B/D 6F

TEL : (02)525-2350 FAX : (02)561-2921

C·P : 010-3388-3283 E-mail : ses1801@hanmail.net

www.ppm.co.kr

전무이사 장 영 덕 (61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567

TEL : (053)563-6806 FAX : (053)554-6806 C·P : 011-9572-3547 E-mail : hj3547@chollian.net

정확한 진단으로 환경을 생각 합니다.
주식회사 한국이앤씨

- 사업분야 -

- 환경영향평가 · 실내공기질측정
- 환경컨설팅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대기·수질·소음측정대행



(주)제일테크노스

대표이사 나 주 영 (62회, 총동창회 부회장)

-조선·철강-



- N.T DECK
- TRUSS DESK
- HI, KEM, JF-DECK
- SHOT BLAST
- STEEL CUTTING
- LOGISTICS CENTER

- 본사(1공장)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로 39번길 7
TEL : (054)278-2841~4 FAX : (054)278-2883
C·P : 010-3501-6279 E-mail : najy@naver.com
- 광 양 공 장 : 울춘단지 TEL : (061)725-2841
- 서울 영업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5 (5층)
TEL : (02)555-2055 FAX : (02)554-1476

www.samsungengineering.co.kr

First in quality Best in value

Samsung Engineering is working toward expanding its markets, client base and business. Through encouragement, teamwork and a shared vision at Samsung Engineering, we believe we can reach our goal.

경영지원실 부사장 손 병 복 (62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467-14 삼성SE타워

TEL : (02)3453-3126 FAX : (02)3453-4047 C·P : 010-3624-1012 E-mail : byungbok.sohn@samsung.com

SAMSUNG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굳건히 갖추고 고객 중심 경영의 실천을 통해
"Good & Great Company"로 나아갈 것입니다.

환경사업

www.sunilenv.co.kr

(주)선일인바텍

대기오염방지시설업·수질오염방지시설업·기계설비공사업·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기업부설연구소

선일종합수처리(주)

폐수수탁처리업·폐수재이용업·고농도 복합폐수처리 시스템·TVR형
전공중발능촉기·전공전조기·폐수 재이용처리시스템



환경과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주)선일인바텍 선일종합수처리(주)

대표이사 손 병 갑 (64회, 총동창회 부회장)

선일인바텍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329-16 TEL : 053-523-8481 FAX : 053-523-0333
선일종합수처리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329-2 TEL : 053-564-7272 FAX : 053-573-8872



1982년 설립, 김치제조 25년의 축적된 경험으로 1999년도 신축공장을 완성 전공정 99% 스테인리스 시설로 절임, 세척, 양념, 숙성 등의 최상의 위생처리 system을 갖추었습니다.

산지계약재배를 통한 100%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영양이 풍부하고 깊은 맛을 내는 우리 고유의 전통김치입니다.



Pogi-Kimchi 포기김치

Sinseondosi Pogi-Kimchi has uniquely deep and cool taste that is created in the process of special salting for Korean origin vegetables.

우리농산물로 재배하여 특수 절임 방식으로 제조한 김치. 시원한 맛이 특징인 한겨레 포기김치

Kkakdugi 학두기

Sinseondosi Kkakdugi boasts fresh and simple taste from strictly chosen solid radishes.

단단한 두릅,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과 함께 양념과 절임한 맛을 내는 신선한 학두기

Chonggak-Kimchi 청각김치

Crispy taste of young radishes and thick seasoning are combined in Sinseondosi Chonggak-Kimchi.

일찍이, 부드러운 맛과 짭짤한 맛과 함께 양념과 절임한 맛을 내는 신선한 청각김치

Mahi-Kimchi 맛김치

Sinseondosi Mahi kimchi is made by properly-cut Korean cabbages for convenience of health modernizers.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를 절임한 맛김치. 맛과 영양을 겸비한 신선한 맛김치

Yeolum-Kimchi 열무김치

Refreshing and simple taste go harmony with Sinseondosi Yeolum-Kimchi. Thanks to lush and lively young radishes.

부드러운 열무는 양념을 시원하게 해주는 맛과 함께 양념의 맛이 조화로운 신선한 열무김치

(주)연안식품
YUNAN FOOD CO., LTD

대표이사 조 선 래 (64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광리 358-4 TEL : (031)941-8540
FAX : (031)941-4686 C·P : 011-222-0429 E-mail : chosr815@hanmail.net

건설업

팔공건설(주)

미래를 위해 · 인간을 위해 · 환경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대표이사 **홍 종 욱** (65회·동기회 회장)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735-3 TEL : (053)428-8080
C·P : 010-4477-8080 E-mail : palgong80@yahoo.co.kr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관한 모든것을 해결해드립니다.

www.patent365.com

이구봉 특허법률사무소

(한국특허)

변리사 **이 구 봉** (7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55-1 (3F)
TEL : (053)568-6363 FAX : (053)568-6361
C·P : 017-505-5214 E-mail : nine-top@hanmail.net

교통사고, 상해, 생명보험금 등 보험금사정 업무

계성손해사정사무소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당신의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소장 **오 재 현** (73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336-11 경원B/D 4F
TEL : (053)653-4972 FAX : (053)629-4972 C·P : 010-3510-8705 E-mail : hangil909@hanmail.net

건설/제조

시노펙스가 맑고 깨끗한 물로 다가갑니다.



멤브레인을 이용한 수처리 분야

- 하/폐수 방류수 재이용 시스템
- 마을 간이상수도 시스템(소규모 수도시설)
- 순수/초순수 제조 시스템
- 해수담수화 시스템
- 지하수담수화 시스템
- 탈염/농축 시스템
- 염수 나노분리 시스템
- 가성소다 재이용 시스템
- 중수도시스템
- 이동식 겸수 시스템(SMDT)
- 빗물 재이용 시스템
- 불산 폐수처리 M/F 멤브레인 시스템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분야

- 가축분뇨 정화 처리 시스템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시스템

음식물폐수 처리 및 자원화분야

- 음식물폐수 연계처리 시스템
- 음식물폐수 자체처리 시스템
- 음식물자원화 시스템

오수/하수/폐수처리 분야

- 오수/하수/폐수 처리 시스템
- 마을하수도 처리 시스템
- 고농도 유기성 폐수 처리 시스템

물환경사업부 사장 **박 병 주** (7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320-2번지
이앤씨 이노비즈타워 709호
TEL : (053)600-8711 FAX : (053)600-8715
C·P : 010-3808-4058

제조업

신 풍

“당신의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 표 김 용 학 (75회)

경상북도 칠곡군 북상읍 어로리 235

TEL : (054)972-6118

FAX : (054)975-0017

C·P : 010-6303-4447

섬유 · 기계 수출

J K 무 역 원 단 천 국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으로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 표 송 대 근 (79회)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302-1 (2층)

TEL : (053)381-0228 FAX : (053)321-3115 C·P : 010-8569-6722 E-mail : tstcs@hanmail.net

(주)고 려 산 삼 고려산삼연구소

대표이사/ 의학박사 · 소장 한영채 (35회)

- KT&G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약리 연구실, 홍삼제조 연구실, 제품연구실)
- 사단법인 한국 지하수 보존 학회 3대회장
- 사단법인 동남아 환경 보호 학회 상임 이사
- 인간 개발원 강사

· 고려산삼의 효능 ·

- 항암효과는 물론, 고혈압, 당뇨등 성인병
- 노화방지, 체력증진,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
-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 나야B/D 903호

TEL : (02)2058-1236, (031)426-8733 FAX : (031)426-8732 C·P : 011-789-0039 E-mail : naturalginseng@hanmail.net

대동고등학교

전화, 054)241-1217

www.daedonghs.com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33번지

교
훈

여호와를 알고 지식을 닦아 협동봉사
할 수 있는 건실한 사람이 되자

포항예술고등학교

전화, 054)262-5401

http://school.net/pharts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현3리 산68번지

교
훈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지혜롭고
참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김 현 호

(43회, 총동창회 고문)

박은영 (59회)
홍태기 (72회)
김성진 (74회)
이종관 (75회)



posco

www.poscoss.co.kr

포스코특수강

대표이사 성현욱 (54회)

고객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작은 것을 더 크게 생각하겠습니다.

posco

SPECIALTY STEEL

포스코특수강은 1997년 포스코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이래 경영혁신과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세계 제일의 특수강 메이커로 성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STS선재 생산 세계 1위 업체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3제강공장 건설 및 압연공장 합리화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했습니다.

포스코특수강 임직원 모두는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활동으로 특수강 업계의 Leading Company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재



무게목강관



환봉



빌렛



평강



단조품

■ 포스코특수강 생산제품 ■

posco

SPECIALTY STEEL

경상남도 창원시 적현로 147 TEL : (055)269-6114 FAX : (055)269-690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포스코 SS & CC TOWER



동도트레이딩/주/
DONGDO TRADING CO., LTD.
동도물산
DONG DO MOOL SAN CORP.



DONGDO TRADING PRODUCTS

- 전자 재료
- 기능성 점착 테이프
- 산업용 소재

대표이사 **이 결** (56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3 코포모 타워
(16-3 KOFOMO TOWER Sunae-Dong Bundang-Gu, Sungnam-Si, Gyeonggi-Do, Korea (463-825)
TEL : (031)711-8315 FAX : (031)711-6584 E-mail : dongdo@dongdo.co.kr

www.yna.co.kr



영상취득
우현주 기자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뉴스와이 채널 23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만드는 보도전문채널 뉴스Y는 연합뉴스의 뉴스 생산력을 토대로 한 유익한 정보(Informative), 정통 뉴스를 다루면서도 새로운 포맷을 통한 혁신적인 뉴스(Innovative), 세계 35개국 46개 지역의 연합뉴스 해외 특파원망을 활용한 풍부한 국제뉴스(International) 등 '3I'를 기치로 하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바르고 빠른 뉴스, 아시아 넘버원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박 정 찬**(60회)

CHONSE CONSTRUCTION



언제나 성실과 신뢰의 자세로
성심 성의껏 시공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 건축물의 외장공사 커튼월(Curtain Wall)복합판넬 및 시스템창호(System Windows)
AL 창호공사 설계·제작·시공업체

천세건설(주)는 인간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川世建設株式會社

(窓戶, 커튼월, 복합판넬)

천/세/건/설(주)

《 대표이사 변 재 진 (62회) 》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762 하남산업지식센터 721호 E-mail : cs5545@hanmail.net
TEL : (031)790-4343 FAX : (031)790-4015 H·P : 011-263-9658

www.yeundental.co.kr

예은치과는 언제나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Change life,
Change smile

예은치과는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경영이념 아래 세밀하고 친절한 환자 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수많은 임플란트 수술노하우를 가진 의료진들이 환자분의 고통은 공유하며 찾아서 시술하는 진료를 환자분들에게 제공합니다.

- ① 공동진료 협진 시스템
- ② 차별화된 시설 및 장비
- ③ 세밀하고 친절한 환자중심 서비스
- ④ 치아, 턱, 얼굴 미용관련 임상연구

원 장 성 제 경 (62회·총동창회 부회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 스카이 웰빙파크 203호 ☎ 진료문의 055-275-2875

바이오 스킨케어 첨단 기술력 세계 마스크팩, 패치 OEM/ODM 분야 NO.1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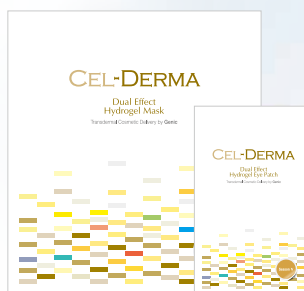
셀더마 '하유미팩'

Season IV



이주 제닉

대표이사 유 현 오(76회)



셀더마 듀얼 이펙트 하이드로겔 마스크 / 아이패치



제닉몰

www.genicmall.com

서울사업장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15-5 (양재동 성경빌딩)
논산사업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 정안대학교 산학협력관 (주)제닉
중앙연구소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 4길 5번지

Tel. 02-579-8265~7 Fax. 02-3461-8268
Tel. 041-733-8269 Fax. 041-733-8268
Tel. 031-278-5431 Fax. 031-278-5432

BORN TO DRIVE



NEW GENERATION **GS**

2012. 3. 12 출시

LEXUS

렉서스 자동차 대구전시장



영업팀장

서 청 덕 (77회)

H.P 011-526-3315

seo@lexusym.com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00-1
(TBC방송국 건너편)

www.lexusym.com

세광화학그룹

극동아시아 최초로 유황(미네랄)비료공장
온산공단에 준공!



세광화학그룹 회장 유윤철
(52회·총동창회 부회장)

그룹본사 : 02)3448-5155~9



SAE KWANG CHEM GROUP

SAE KWANG CHEM.IND.CO.,LTD

GUNSOO IND.CO.,LTD

MAN JANG IND.CO.,LTD

SAE KWANG CHEM.PLUS CO.,LTD

OPEN!

최상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중심센터 강동재활운동센터



구미유일! 척추, 관절센터와 연계한 재활운동센터 오픈!

근 · 골격 만성통증!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만성적인 목, 어깨, 허리, 발목 통증... 그 동안 어떻게 관리해 오셨나요?
이젠, 구미강동병원 척추·관절센터의 전문의와 연계하는 재활운동센터에서
전문 재활 트레이너와 1:1 맞춤관리 시스템으로 재활운동을 경험해 보세요!



구미강동병원장·의학박사

(53회 충청창회 부회장)

구미강동병원 재활운동센터 /프/로/그/램/소/개/

- 1. 급만성 근골격계 통증관리를 위한 개인별 맞춤 운동**
체형분석 및 근력검사를 통한 맞춤운동
- 2. 수술 전, 후 재활운동**
수술 후 조기재활을 통하여 빠른 회복력 향상, 일상생활 복귀와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 3. 성장기 어린이 운동 프로그램**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과 주위 조직이 적절히 발달 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맞춤 성장 운동프로그램
- 4. 청소년 운동 프로그램**
학업과 컴퓨터 생활로 인해 쉽게 발생하는 척추와 자세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운동 프로그램
- 5. 여성 전용 체형 관리 프로그램**
측만증, 일자목, 비만등으로 체형관리에 관심이 많은 여성 전용 운동 프로그램
- 6. 남성 몸매 관리 운동 프로그램**
필요한 근육들을 발달 시키고 전체적 몸매관리에 관심이 있는 남성전용 운동프로그램
- 7. 산후 운동 프로그램**
분만후 틀어진 척추, 골반등의 신체 정렬을 바로 잡고 빨리 이전의 몸매를 유지하고 싶은 산모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 8. 어르신 건강 운동 프로그램**
무리한 운동이 위험할 수 있는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운동 프로그램
- 9. 스포츠선수 특별 관리프로그램**
전문 스포츠 선수를 위해 최대한의 기능 향상을 위한 특별 운동 프로그램



구미강동병원 재활운동센터
GangDong Rehabilitation Sports Center

478_9777

대표전화: 054) 453_7575 ~7
척추센터: 054) 478_9574

홈페이지: www.gumigd.co.kr
관절센터: 054) 478_9587

화 / 진 / 산 / 업

The Special Processor, for your any Special Order!!

화진산업은 섬유염색산업의 일선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운영을 목표로 시대를 리드하는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차별화된 기업정책으로 제조분야의 또다른 표본이 되고자 하며, 앞으로도 능동적이며 스스로 겸손 할 줄 하는 자세를 겸해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 표 권 동 욱 (54회)





연삭숫돌 종합메이커

새로운 연삭분야의 개척은
저희들의 “使命”입니다 !

The Best Technology & The Best Quality



21세기의 도전과 개척을 우리의 사명으로, 저희 임직원은 고객의 중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마업계에서 선두로 우뚝 선 지금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초일류, 세계 제일의 연마지식 회사로 도약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1955년 창립 이래 줄곧 국내산업 즉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건설 등 기간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항공 산업등의 첨단소재 가공분야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력산업이 성장, 발저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최고의 품질로”

“고객으로부터의 사랑을 받기 위한 최적의 가격으로”

“고객으로부터의 감동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위하여 회사 전 분야에 걸쳐 노사 모두 한마음이 되어 회사의 운명을 걸고 경영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본사 / 포항공장 ·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2
TEL : (054)285-8401~5 FAX : (054)285-5780



· 안성공장 ·

경기도 안성시 신모산동 101
TEL : (031)675-5390~5 FAX : (031)675-6425

www.grinding.co.kr



제일연마공업주식회사
CHEIL GRINDING WHEEL IND. CO., LTD.



대표이사 오 유 인 (55회, 총동창회 부회장)

同行 同幸



신한은행의 동행은
고객과 함께 가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서
더 행복한 내일을 이루는 것,
신한은행이 고객과 이루고 싶은
동행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신한은행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은행장 서진원(56회)

POWERTRAIN PARTS

GLOBAL H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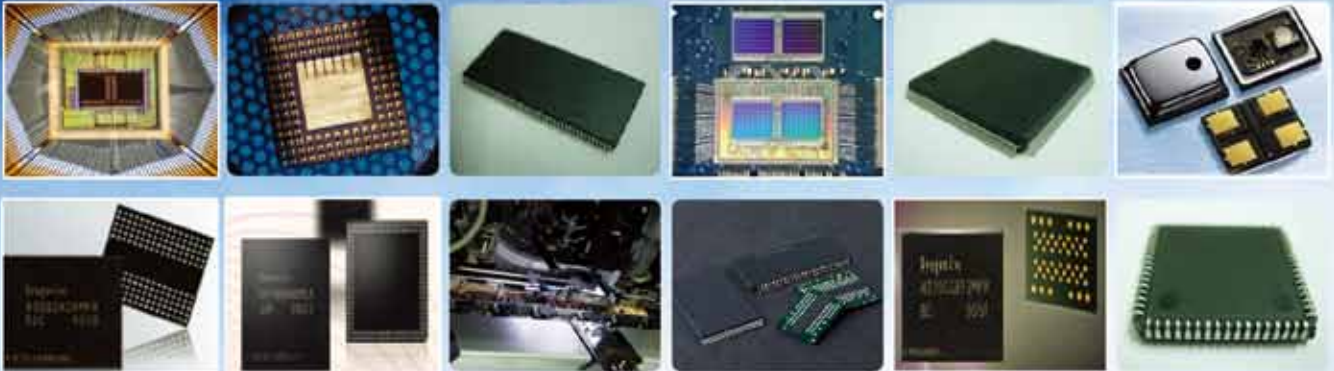
Devoting Every Effort to Happiness
and Future of Humankind

The endless pursuit of better products,
The quality of the product is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company.
Valeo Pyeong Hwa will return your trust with our unique technology
and know-how.



회장 김 상 태 (58회, 총동창회 부회장)

SUPERIOR SEMICONDUCTOR COMPANY OFFER SUPREME VALUE



세미텍은 고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고객감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미텍은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즐겁게 일하며 더불어 살자”의 사훈과 “STAR 인재육성, 고객만족 가치창조, 자율투명경영” 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설립된 반도체 후공정 전문회사 입니다.
- 후공정 Total Customer Solution 을 제공합니다.
PKG Design - Probe Test - Back Grind -Assembly -Final Test
- Core Product는
Memory : Computing, Consumer, Graphics, Mobile, Nand Flash
System LSI : SIP, MCU, T-CON, MEMS, Logic, DSP, ISP, ASIC, SOIC
- 고객의 새로운 Needs에 대해서도 최단 기간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지속적인 Global 인재육성을 통하여 최고의 품질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혼을 담은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CSP, STACK, MCP, PoP 등은 자체 연구인력을 통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차세대 제품에 대한 창의적 연구개발로 “반도체 후공정 Global Standard 기업 세미텍”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Office



Plant I,II



Dormitory



Happy House

(우:365-824)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432-6
(우:365-80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604
(우:365-824)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135
TEL : 043) 530-1300 FAX : 043) 536-2326

Safety-sincerity-satisfy, Best shipping service!

해광상선(주)



▲ 해광상선 보유선박 사진

Seabright Maritime

■ 운항 선대

· 철강제품 및 각종 원자재 운송선 (6척 보유)

- 6,000톤급 : MV.SEA LUCKY 1 (사진)
- 3,500톤급 : MV.SEA ROSE / MV.SEA NURI
- 2,500톤급 : MV.SEA ORION / MV.SEA DAON / MV.YUZAN

· 조선 기자재 및 중량화물 운송선 (4척 보유)

- 내·외항 BARGE선 : 해광 B-1 / 해광 B-2
- 외항 TUG BOAT : 해광 T-1
- 내·외항 TUG BOAT : 해광 T-2



SeaBright MARITIME

海光商船株式會社

대표이사 이 철 (67회)

■ 사업내용

- 한국 → 중국 → 일본 → 동남아 부정기선 운항업
- 부정기선 화물운송 중개업(1,000톤 - 6,000톤)
- 부정기선 용선 및 매매업 · 국제선박대리점업 · 선박관리업

비전과 열정의 공동체

성공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Open the Door, Go to the World!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 평화정공(주)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통합되고 분산된 글로벌 경영을 실천해온 평화정공은
자동차 도어무빙 사업분야의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정공은 ISO26000 실천을 통해 내부고객 만족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품격 있는 회사,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정공주식회사



시간을 이기는 피부과학, 그 다음은 뭘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해도 당신의 아름다움은 변치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슈잔드린 추출 기술, 이데베논, Lift-up 세럼 등의 항노화 기술로
피부 시간을 멈추게 하는 과학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콜마의 모든 기술은 시간과 싸우는
항노화 기술과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당신을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왔듯, 오늘도 한국콜마는
다음 단계의 새로운 피부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변화, 한국콜마



한국콜마

대표이사 **윤 동 한** (52회 · 재경동창회 회장)